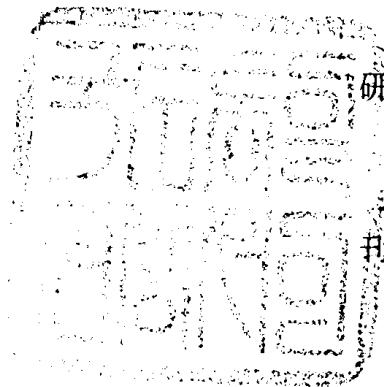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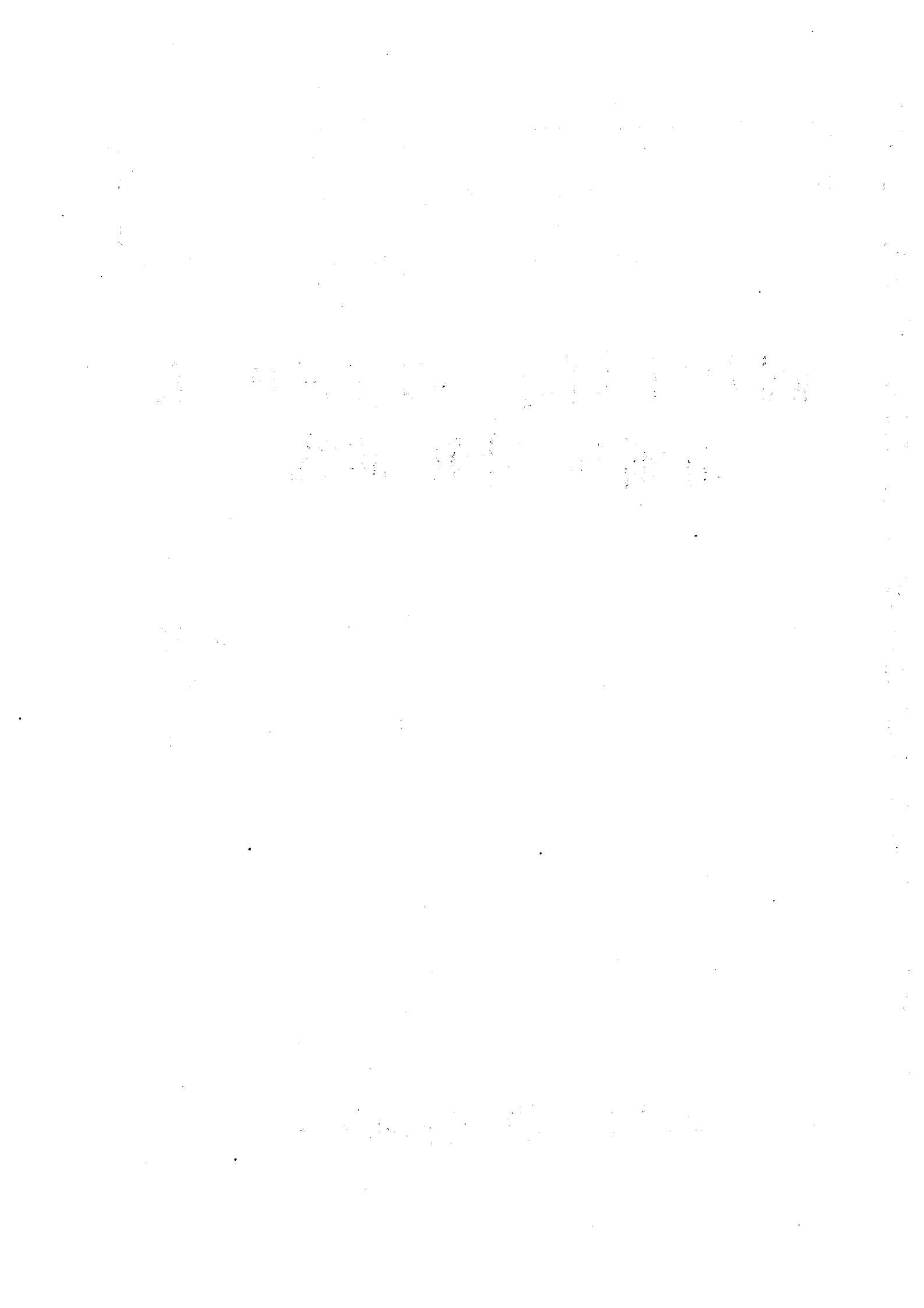
# 國力の 概念, 內容構成 및 評價에 관한 研究



研究執筆責任 金 永 俊  
(江原大 教授)

刊行責任 金 淳 培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要 約

權力은 政治의 本質이며 国内政治이던 國際政治이던 間에 그것은 權力을 媒介로 하는 支配·服從關係이며 特히 國際政治에 있어 權力의 契機는 支配的이다. 國際政治를 行動關係로 본다면 힘은 概念上 相對國에 對한 相對的인 關係에서 規定할 수 밖에 없는 行動關係에서의 相對的인 概念이다. 이리하여 힘의 概念 定義에 관하여서는 近者에 漸次 量的인 概念에서 行動關係의 概念으로 定義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라 할 것이다. 絶對的인 힘의 概念은 意味가 없다.

國家의 힘 卽 国力(national power)은 國家의 能力(national capability)과 區別되며 따라서 国力은 단순히 國家能力의 算術的인 總計는 아니다. 国力은 國家能力을 包含하는 包括的인 概念이기는 하지만 國家能力과는 다른 次元에 關聯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國家能力은 客觀的으로 評價될 수 있는데 反하여 国力은 모든 境遇에 있어서 心理的이며 相関關係的이다. 뿐만 아니라 国力은 國家가 追求하는 目標價值나 國家政策目標의 追求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따라서 国力은 相對的인 行動關係의 產出結果로서 理解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相對的인 相関關係에 있는 어떤 政治集團 間의 現象은 權力現象을 內包하기 때문이다. 權力의 要素를 排除하고 相関關係는 成立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国力은 相関

關係의 事實에 依하여 이룩된 主觀的인 概念이며 따라서 客觀的인 條件이라기 보다는 心理狀態와 直接的으로 聯關된 主觀的인 概念이다. 그리고 国力은 相對國과의 關係에서 目標價值나 國家政策目標를 追求함으로써 느껴지는 滿足意識과 聯關되어 있다. 따라서 国力은 相對國과의 相對的인 關係條件의 評價를 重要視하게 된다. 따라서 国力은 相對的인 概念으로 認識되어야 한다. 어떤 國家가 保有하거나 또는 意識하는 国力은 他國의 그것에 對한 相對的인 힘이다.

이러한 国力은 複合的인 要素로서 構成하며 專門家들의 分析은 各己 特色을 나타내면서도 그 共通性을 또한 發見할 수도 있다. 여기에 一例로서 Harold Sprout와 Margaret Sprout 夫妻의 分類方式을 紹介하면, 이들은 国力을 다음과 같은 다섯개의 機能的 範疇로 分類하고 있다. 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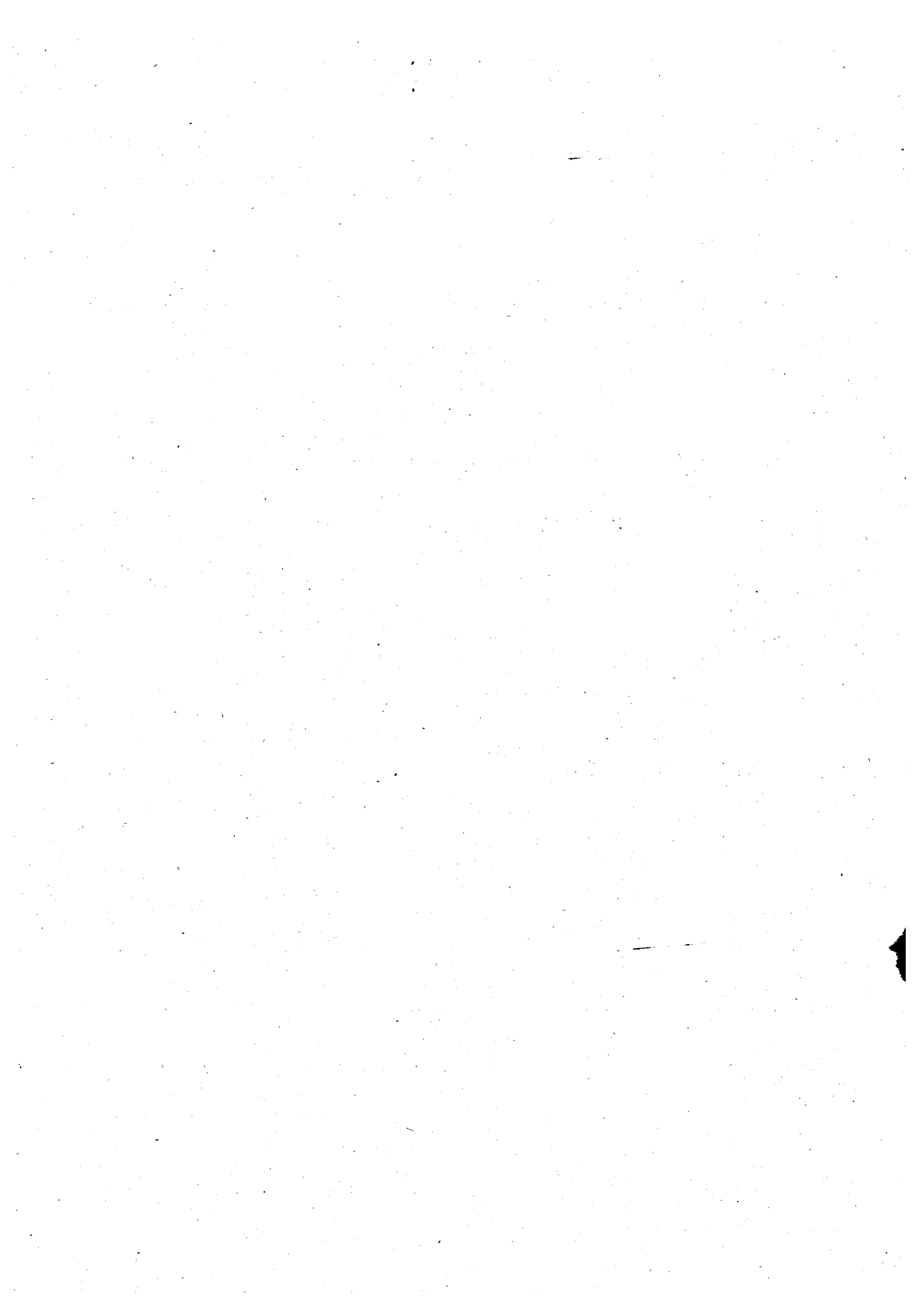
- (1) 情報提供機能
- (2) 決定作成機能
- (3) 手段提供機能
- (4) 手段活用機能
- (5) 要求 - 抵抗機能

이 그것이다.

国力의 構造를 어떠한 要素로서 分類하며 또한 그들 要素中에서 무엇을 重要視할 것이냐는 매우 重要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問題는 이것에만 局限된 것은 아니며 国力의 評價技法問題

와 理論設定問題가 또한 있다. 다시 말해서 国力의 概念定義를 비롯하여 国力의 構成要素, 国力의 評價 그리고 理論設定等 이들 一連의 問題들이 有機的으로 体系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近者에 힘에 관한 論文들이 效果的인 国力의 評價問題에 對한 概念定義를 試圖하고 있다. 国力의 評價問題만 하더라도 評價의 一般的인 概念을 비롯하여 国力의 概念 그리고 評價를 위한 試圖가 解決되어야 한다. 評價의 機能은 一定한 原則을 設定하여 分析資料를 理論構成과 連結시키는데 있으며 따라서 概念構成과 理論에 對한 評價의 關聯性을 于先的으로 指摘해야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政治學이나 國際政治學에 있어서 科學的 研究方法의 核心的인 問題를 세가지로 集約할 수 있거니와 이들 三大問題는 概念構成·理論設定·評價에 關한 것이다. 그러나 要件대 政治學이나 國際政治學에 있어서 權力에 關한 文獻이나 研究의 殆半은 概念定義와 評價技法을 지나치게 強調하는 反面에 理論을 지나치게 덜 強調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效果的인 科學的 目的에 畛與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三大課題의 解決을 同時에 追求해야 한다. 概念·評價·理論의 三者의 有機的인 理論體系化的 問題는 쉽사리 成就되기 어려운 問題이며 앞으로의 研究結果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 目 次

要 約 .....	1
序 言 .....	7
(一) 問題의 提起 .....	8
(二) 國際關係와 国力 .....	12
(三) 國家政策과 国力 .....	16
(四) 国力의 概念과 構造·分類 .....	20
(1) 国力의 概念 .....	20
(2) 国力과 政治權力 .....	22
(3) 国力의 構造·分類 .....	26
(五) 国力의 分析·評價에 있어서의 考慮要素와 問題點 .....	51
結 論 및 建 議 .....	60
註 記 .....	61





## 序 言

이 報告書는 「南北韓 總力 趨勢比較」에 要하는 基本概念의 設定에 一助를 다하기 위한 作業이다. 南北關係의 特殊性이나 우리의 當面한 狀況的 特性에서 보아 우리의 立場을 總力趨勢의 觀点에서 比較研究하는것은 그 무엇보다도 緊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으나 概念의 多樣性和 混亂性은 勿論 概念과 實際사이의 差異 그리고 北韓體制와 社會의 特性等 一般性和 區別할 수 밖에 없는 個別性에서 미루어 본다면 一般論的인 概念이 그대로 南北間의 總力趨勢比較에 適用되기에 是 적지않은 無理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主題 그 自體의 龍大性을 勘案하여 이번 研究에서는 一般論的인 概念設定에 主眼點을 두고져 함을 먼저 밝혀 둔다.

들째로는 一般論的인 概念設定을 위한 分析 檢討에 있어서 總力을 構成하는 構造的인 要素의 抽出에 있어서는 많은 個別的인 要素를 羅列하는 方式을 止揚하고 總力의 概念, 總力의 基本的인 構成要素, 國際關係 및 國家目標와의 相關關係, 그리고 總力의 分析 評價에 있어서의 考慮要素와 困難性等을 檢出하는데 主된 關心을 두고져 한다.

## (一) 問題의 提起

첫째로 社会科学 特히 政治学의 基本概念으로 되어 온 「힘」(Power)에 대하여서는 概念定義의 多樣性이 惹起하는 混亂이 적지 않다.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를 다루는 自然科学과는 달리 社会科学 特히 政治学에서는 人間과 人間과의 社会關係에서 이루어지는 支配關係를 다루니 만치 「힘」의 概念이 政治学에서 가장 典型的인 分析單位로 되어왔음에도 不拘하고 概念上的 混亂을 免치 못하고 있다. 「힘」의 概念을 影響力(influence)과 同義語로 使用하는 學者가 있는가 하면 影響力이 說得에 依存하는데 反하여 「힘」이 強制力에 依存한다 하여 이 兩者를 區別하는 學者도 있다. 또 學者에 따라서는 힘이 說得과 強制力의 兩者로 構成된다고 分析하는 境遇도 있다. 뿐만 아니라 靜態的인 意味에서 떠나 動態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힘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形態에서 다른 形態로 끊임없이 變轉하기 때문에 狀態變化의 物理学上的 概念과 密着되어 있다.

때문에 實際作業에 있어서의 概念上的 混亂을 막기 위하여 「南北韓의 總力」을 南北韓이 各己 하나의 政治的共同体(political community)로서 그의 目標價値의 實現을 위하여 動員할 수 있는 總體的인 力量으로 概念規定해 둔다.

이러한 意味에서 Raymond Aron은 다음과 같이 힘의 概念을 定義하고 있다.

한 個人의 힘이란 그의 行動能力이며 무엇보다도 他人들의 行動이나 感情에 影響을 미치는 能力이다. 國際的 狀況에서 는 나는 힘을 어떤 政治單位가 그의 意思를 다른 政治單位에 부과할 수 있는 能力으로 規定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政治權力이란 어떤 絶對的인 것이 아니라 人間關係이다.<sup>1)</sup>

둘째로 政治學者들이 「힘」을 核心概念으로 取扱하면서도 國內政治의 分析과 國際政治의 分析에 있어서 各己 그의 關心의 焦點을 달리함으로써 概念說明에 있어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政治的 共同體로서 國家가 지니는 힘 卽 政治權力(political power)는 內治와 外交의 兩面을 包括할 수 밖에 없으나 實際에 있어서 政治理論을 다루는 學者들은 政治權力 그리고 國際政治學者들은 国力(national power)이라는 用語로 各己 概念規定을 하고 있다. 하나의 政治的 共同體로서의 國家는 自國民과 國內的인 다른 政治的 社會的 諸集團에 대한 關係를 處理하기 위한 內治 및 다른 또하나의 政治的 共同體인 國家와의 關係를 處理하기 위한 對外關係라는 兩面을 包括해야 함은 勿論 이러한 內治가 同時에 對外關係로서 延長되고 또 그의 基盤이 되지만 政治權力 또는 国力이라는 用語를 各己 使用하여 前者는 政治理論 그리고 後者는 國際政治의 主된 關心으로 되어 있다 함은 政治權力은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로 集約歸負되는 反面에 国力은 國家와 國家와의 關係로 集約歸負되는 概念上的 用語임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平面的 靜態的 次元에서 본다면 內治(政治權力)와 國際關係(国力)

을 各己 分離하여 評價하는 것이 相對적으로 容易하나 動態的 立體的 次元에서 본다면 內治(政治權力)가 國際關係(国力)의 基盤이 된다는 점에서 이 兩者의 有機的인 聯關評價가 概念上 理想的이다. 어쨌든 주어진 主題 다시 말해서 南北韓 總体力량의 比較라는 眼目에서 본다면 總体力량의 概念은 政治權力보다는 国力이라는 概念과 同義語로 理解하여 無妨할 것이다.

셋째로 힘(權力)이 目的이나 또는 다른 目標價値의 實現을 위한 手段이나에 대하여 從來에 兩論이 있어 왔다. 權力의 目的性과 手段性은 相互補完關係에 있는 同一體의 兩面으로서 그의 明確한 区分은 理論上으로도 實際上也에 있어서 多같이 不可能하다. 權力이 지니는 目的性에 대한 否定的인 立場은 目的으로서의 權力追求가 過去에 있어 國際平和의 攪亂者로서의 나찌政權의 登場에 대한 嫌惡를 想起시키는 道德主義的 立場이 優先하고 있음은 再論을 要치 않는다.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에 歸着하는 國內政治나 國家와 國家와의 關係에 歸着하는 國際政治는 多같이 支配와 服從이라는 二元的인 權力關係로 集約되며 特히 國際關係에 있어서 權力의 役割이 典型的이며 따라서 國際政治에 있어서는 政治的 共同體로서의 國家를 「힘의 單位」(power unit)로서 評價하며 強大國을 Great power, 超強大國을 Super power, 그리고 弱小國을 Small power로서 各各 부르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權力이 目的이나 또는 手段이나에 대한 論議는 理論上으로도 實際上也으로 多같이 無意味하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權力

이 지니는 '目的性과 手段性의 兩面을 일단 首肯하면서도 南北關係의 特殊性에 대한 考慮에서 国力을 目標價值 또는 그의 實現을 위한 政策遂行에 動員할 수 있는 手段的 側面에 主眼點을 두고저 함을 附言해 둔다.

네째로 南北韓 總力趨勢 比較를 위한 一助를 다하고저 總力の 概念規定을 비롯하여 國家活動과의 關係, 總力の 構造와 分類, 그리고 分析·評價에 있어서의 考慮要素等 一連의 概念的 모델의 設定을 試圖하지만 理論과 實際間의 差異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困難性때문에 이러한 一連의 概念的 모델이 그대로 實際에 適用되기 어려운 點이 있음을 看過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試圖를 加하는 것이 概念的 모델에의 接近을 위한 努力이 理論과 實際사이의 罅을 메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二) 國際關係와 国力

國際社會에서 힘은 어떤 政治單位 即 民族國家가 다른 政治單位에 그의 意思를 強要하는 能力이라고 規定한 R.Aron의 定義를 앞에서 引用한 바 있다. 그러나 힘에의 依存은 비단 國際政治에서만이 볼 수 있는 獨特한 現象은 결코 아니며 모든 政治關係는 힘을 媒介로 하는 權力關係이며 다만 量과 質에 있어서의 差異가 있을 따름이다. 政治學에 있어서 政治社會의 成員을 支配層과 被支配層으로 兩分하여 說明하는 것은 政治行動이 어떠한 次元에 놓여 있던간에 그것이 支配와 服從의 二元的 機能을 包含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人間은 恒常 그들의 欲望을 國家의 名目下에 行動하며 服從을 強要할 權力을 가지고 있는 支配層에게 服從하겠음 強要 當하고 있다. 政治現實主義者들이 統治者는 國家의 有機體로서의 生存을 保障하기 위하여 政治社會의 다른 構成員과는 다른 道德的 基準을 採擇해야 하며 또 힘을 中心으로 한 統治者의 基準이 國家의 生存을 保衛할 수 있다는 主張은 이것을 論據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 強制는 政治社會를 公共利益을 위한 것이라고 그의 成員이 是認할 때 비로소 成立된다. 따라서 統治에 관한 모든 決定은 一方的 服從에 관한 充分한 期待下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統治者는 어떠한 不服從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恒常 政治的 計算에 두어야 한다. 不服從을 處理하기 위하여 國家는 最終적으로 物理的인 暴力을 包含하여 모든 形

態의 權力을 行使할 수 있으나 이것은 秩序維持가 社会的으로 要  
望되며 不服從이 抑制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被支配層이 是認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統治者는 革命과 같은 大衆의 不服從의  
潛在性을 考慮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國際政治에 比하면 国内政  
治는 이러한 衝突을 統制하는 裝置와 規則을 保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国内政治와 國際政治에서 다하는 힘의 役割에는  
主要差異가 있다. 国内政治에 있어서는 市民社会에서 暴力에 代身  
할 많은 代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政治社会의 成員이 共  
同生活의 結果 純粹 物理学的인 힘만으로서는 그들 相互間의 關係  
를 調整할 수 없다는 것을 理解하게 된다. 따라서 政治社会의  
成員은 서로 個人的 權利와 自由를 認定하게 되며 非暴力的인 節  
次를 設定하기 위하여 一般的인 法律体系를 마련하게 된다. 法施  
行機關은 個人이 아니라 政治的 共同体로서의 國家가 되게 되며  
赤裸裸한 暴力은 어디까지나 政治的 共同體의 名目아래 行動하는  
國家가 独占하는 것이 通例이다. 따라서 이러한 合理主義的인 立  
場에서 본다면 힘은 国内政治에 있어서는 利害의 差異를 調整하는  
于先的인 手段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國際關係는 이것과는 判異하다. 國家의 테두리 안에서  
權力的 欲求를 充足시키지 못한 個人은 國際舞台에서 國家發展의  
名目아래 그의 權力衝動을 追求하기 쉽다. 國際社会는 主權民族國  
家를 典型的인 「힘의 單位」로 하여 構成되며 이들 主權民族國家  
의 活動을 支援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가 民族主義이기 때문에

이들 民族國家는 自己中心的인 法則에 따라 政治目的을 위하여 運動한다. 自己中心的인 法則에 따라 運動하는 民族國家의 屬性을 法律學的으로 表現한 것이 바로 「主權」의 概念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近代民族國家體系에서 있는 近代國際社會는 合理的인 면서도 매우 非合理的인 近代國家라는 行動主體로서 構成되어 있으며 따라서 國際社會는 自己中心的인 民族主義 對 民族主義의 對立과 競爭속에 躍어지는 行動關係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더욱이 目標價値의 實現을 위하여 國家政策을 現實化하기 위하여서는 힘의 契機가 要請된다.

이것은 國內政治에 있어서와는 달리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公認된 「물」이 없기 때문에 國家가 그 權利를 保護하고 生存을 維持하기 위한 唯一 窮極的인 效果的 手段이 「힘」일 수 밖에 없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非暴力的인 手段이 充分한 集團的인 制裁力을 欠如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效果的인 運營에 必要한 「메카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國際政治는 國內政治와는 달리 制度的인 틀 속에서 運營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制度的으로 安定을 維持하기에는 不完全할 수 밖에 없다.

平和時에는 慣習을 基盤으로 不完全한 構造로서 非暴力的인 節次를 賦與하게 되지만은 危機에는 恒常 이것이 破壞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어 國際政治는 國內政治와는 달리 赤裸裸한 強制力에 依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國際政治를 權力政治로 規定되게 되며 따라서 國際政治에서는 單獨主義이던, 集團安保體制이던 또는



勢力均衡이던 그 形態야 어쨌던 間에 힘의 組織化가 要請될 수 밖에 없다.

이로서 国内政治에 있어서 보다는 國際政治에 있어서 典型的으로 힘의 契機가 登場하지 않을 수 없다는 一般論的인 考察을 試圖하였거니와 우리의 南北關係도 單純한 理念的 對決이라기 보다는 本質적으로 힘의 對決關係이며 따라서 南北韓이 各己 지니는 總力은 南北韓이 各己 內的으로 對國民關係에서 보다는 外的인 南北關係에서 그의 政治的 契機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強調해 둔다. 따라서 南北總力趨勢比較는 南北韓이 各己 相對方에 대하여 그의 目標價値의 實現을 위하여 權力關係에서 動員할 수 있는 總力の 趨勢比較일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理解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南北韓의 總力은 서로 相對方에 대하여 相對的인 概念일 수 밖에 없다.

### (三) 國家政策과 國力

國家活動의 合理化를 위하여서는 特定한 目標價値의 實現에 要하는 手段과 方便에 관한 研究가 必要하다. 國家는 여러 目標價値를 有機的으로 統一·調和시켜야 하며 특히 近代國家의 機能이 擴大되고 複雜하여 짐에 따라 政治의 效率化와 權力經濟의 原則이 要請됨에 國家는 實踐可能性이 있으며 伸縮性있는 國家政策의 計劃·樹立·執行이라는 要請에 當面하고 있다. 「國家政策이 特定한 國家가 追求하는 目標價値의 實現을 위한 行動方針이라고 定義한다면 國家政策의 現實化를 위하여서는 國家가 當面하는 對內外的인 與件 다시 말해서 周圍環境을 處理해야 하며 이 處理能力이 바로 國力이다. 이러한 國家政策과 힘의 契機와의 相關關係를 理解하기 위하여서는 國家政策의 樹立·執行에 要하는 一連의 思考過程에 대한 認識이 先決條件이 아닐 수 없다.

特定한 國家가 政治的 共同體로서 어떤 目標價値의 實現을 追求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目標價値가 國家活動의 實質的인 動機로 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重要的 것이 國家의 實利的인 利害關係 다시 말해서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政治的 共同體로서의 國家가 追求하는 目標價値에서 가장 重要的 價値인 國家利益은 概念上 「이데올로기」나 道義와 같은 政治的 名分과는 일단 區別하는 國家의 實利的인 利害關係를 意味하며 安全保障(security) 繁榮(또는 福祉) 그리고 國威로서 構

成된다. 2) 따라서 国家利益은 国家的 生存의 維持와 繁榮의 追求로 大別할 수 있으며 따라서 国家利益은 概念上 現在的 概念이라기 보다는 国家發展을 위하여 国家가 接近코져 追求하는 終極的이며 未來的이며 理念的인 價值나 目標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여기에 国家利益은 概念上 段階的인 接近이 不可避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中間過程에 있어서 여러 目標의 設定이 必要하게 되는바 이것이 바로 国家目標(national goal)의 概念이다. 国家利益이 概念上 政治的 共同体로서의 民族国家가 追求하는 基本的인 目標價值라고 한다면 그의 보다 具體的인 提示가 国家目標이며 따라서 国家目標는 国家的 对内外政策으로 轉換된다. 換言하면 国家利益이 国家目標를 樹立·設定하는데 있어 基準이 되고 또 国家目標는 国家政策의 樹立에 있어 그 基本的인 方向과 路線을 決定케 한다. 故로 国家目標는 国家가 達成코져 하는 国家政策의 目標임과 同時에 歸着点이 되며 그의 表現은 公式으로 되는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境遇도 있어 相對國의 国家目標를 明確히 判斷하는 것이 重要할 뿐만 아니라 또 難題가 아닐 수 없다. 国家目標는 基本的인 法的文書나 国家的 政治機構 그리고 輿論이나 그때 그때의 必要性에 依하여 公式으로 「表現」되는 수도 있는 反面에 默示的으로 「標榜」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相對國의 国家目標의 判斷이 難題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国家利益을 基準으로 하여 設定되고 또 国家政策의 目標로 되는 国家目標는 그 設定基準에 따라 여러 가지로 樹立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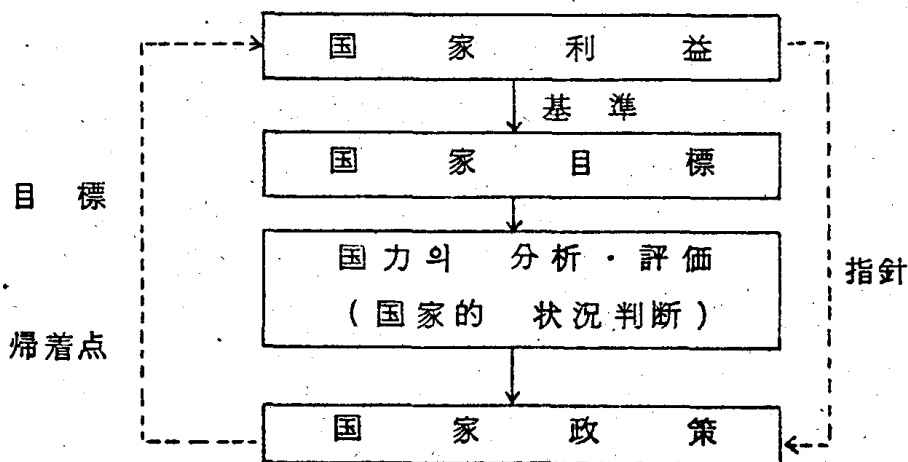
國家目標의 類型을 Organski 教授의 持論에 따라 參考삼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基 準	分 類
國民的 合意	統一的 目標 & 分裂的 目標
受益의 範圍	自國本位的 目標 & 人類的 目標
時 間 性	長 期 目 標 & 短 期 目 標
內容의 具體性 與否	一 般 的 目 標 & 具 體 的 目 標
明 示 性 與 否	明 示 的 目 標 & 實 質 的 目 標
追 求 目 的	現 象 維 持 的 目 標 & 現 象 打 破 的 目 標

여기에 있어서 國家政策은 特定한 國家가 國家目標를 達成하고 國家利益의 保存·增進을 위하여 取하는 國家의 總體的인 行動方針을 말한다. 따라서 一般論的인 意味에서 본다면 國家政策의 目的은 國家利益의 意味內容이 되는 安全保障·福祉(繁榮)·國威에 두어 지지 않을 수 없다. 國家政策의 分類도 一定한 公式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그러한 政策을 追求하는 政治的 共同體의 性格과 目的에 따라 分類되지만 一般的 分類로서는 內外의 觀點에 따라 對內政策과 對外政策, 內容을 基準으로 하여 外交政策, 安全保障政策, 軍事政策, 經濟政策, 財政政策, 文教政策等 그리고 重要性의 度에 따라 基本政策, 一般政策等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國家政策의 樹立에 있어 그의 基本的인 方向과 路線을 決

定하는데 基準이 되는 國家目標를 對內外의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論할 수 있을 것이다. 卽 첫째로 對內的인 國家目標는 自由를  
 保障하고 多元的인 國民의 利害對立을 調節하여 經濟的 福祉를 向  
 上시키는데 있고 또 對外的인 國家目標는 安全保障, 權益의 擁護  
 및 國際的 地位向上에 있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國家政策이 特定한 國家가 國家目標의 達成과 國  
 家利益의 保存·增進을 위하여 「採択하는」 總體的인 行動方針이  
 라 하더라도 그 政策의 實現을 위하여서는 目標價値 指向的인 當  
 爲性의 域에 머무르는 「採択하는 政策」이 아니라 「힘」의 契機  
 에 의하여 뒷받침된 「採択할 수 있는 政策」이 됨으로써 비로소  
 「산」 政策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逆說的으로 論한다면 힘의  
 目的性과 手段性에 대한 것은 일단 論外로 하더라도 國力의 概念  
 把握은 國家政策의 遂行能力이라는 觀點에서 理解하는 것이 現實的  
 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國力의 概念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一連의 政策樹立思考體系와의 有機的인 聯関속에서 理  
 解되어야 한다. 4)



#### (四) 国力의 概念과 構造·分類

##### (1) 國力の 概念

國際政治를 權力政治(power politics)로 보는 現實主義 立場과는 달리 合理主義 立場에서는 国力(national power)을 國際政治에 있어서 그 自体를 目的이라기 보다는 國家政策目的을 成就하기 위한 手段으로 본다.<sup>5)</sup>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際政治의 現實은 強大國은 權力을 正當한 目的으로 追求하는 境遇가 許多하다. 權力的 增大는 그것 없이는 다른 國家目標(또는 國家政策의 目標)를 成就할 수 없으므로 國家目標의 成就를 위하여서는 要望되는 附加的인 目標이기도 하다. 어떤 特定한 國家가 그의 權力的 地位의 恒久的 改善을 追求할 때에는 他國의 直接 또는 間接的 犧牲 없이는 不可能하다. 이것은 國際政治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며 相對國에 대하여서도 連鎖反應的인 行動을 隨伴하게 되므로 結果的으로 權力的 追求는 冒險을 隨伴하며 國際平和에 대한 威脅要因으로 되어 왔다.

國家는 아무리 最善의 努力을 하여도 그 目的選擇에 있어서 重大한 制限을 받게 된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國家가 무엇을 追求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할 權利가 있다는 것을 保障하는 自動的인 「메카니즘」이 國際政治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國家는 다만 國家目標의 成就를 위하여 必要·充分하게 強力한가

또는 그와 같은 能力을 保有하느냐에 따라 그 活動이 規定된다. 國家는 目標成就를 위하여 動員할 수 있는 能力의 限度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 權力은 目標나 政策에 影響을 미치며 國家에 따라 權力에 差異가 있고 事件의 歸趨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므로 무엇이 国力이며 國際政治에 있어서 그 役割이 무엇이며, 国力이 무엇으로 構成되며 또 国力은 어떻게 分析·評價할 것이냐의 問題가 가장 重要하지 않을 수 없다.

国力은 他國에 對하여 強制的인 影響力을 行使하며 또 他國에 依한 그와같은 影響力에 抵抗하기 위하여 動員될 수 있는 總體力量이라 할 수 있다. 国力의 概念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確實히 強制的 要素가 아닐 수 없다. 特定한 國家가 議論, 說得 또는 기타의 自由로운 合意에 의하여 그의 目標를 成就할 수 있을 境遇에는 이와같은 成就가 그 國家가 保有하는 힘과 直接 關係되지 않을 境遇가 있다. 따라서 모든 國際關係는 恒常 權力的 考慮에 의하여서만이 支配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國家間에 利害의 共通性이 있을 境遇에는 그 當事國間의 關係는 어떤 強制的인 內容과는 相對的으로 自由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利害의 一致性은 드문 일이며 또 그것도 設使 成立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持續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故로 모든 危機的인 狀況을 包含하여 거의 모든 國際關係는 權力的 基準에 그 動機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強大國일 수록 問題處理에 있어서 보다 큰 行動의 自由를 가지게 된다.

国家利益이 国家活動의 實質的인 動機가 되지만 이와같은 動機와 實質的인 政策 사이에는 差異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特定한 国家가 当面하고 있는 对内外的 環境에서 오는 諸与件이 国家政策의 内容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策樹立者는 政策動機인 国家利益이 現實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느냐의 内容을 明確히 把握해야 하며 또 政策을 国家活動으로 實踐하기 위하여서는 国家的 現況을 起点으로 하여 国家的 周圍環境 即 与件을 處理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国家政策이 산 政策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動機賦与로서 作用하는 国家利益이 環境的 与件과 均衡을 維持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環境을 處理하기 위하여 国家가 動員할 수 있는 力量이 国力이다. 이렇게 보면 国力이란 結局 国家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있어서의 先行條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国力이 有形·無形的인 여러 要素에 의하여 構成된다고 하더라도 具體的인 그의 構成要素에 관하여서는 學者의 見解가 区区하다. 이러한 国力의 構造와 分類에 대한 學者의 見解를 檢討하기에 앞서 国力(national power)과 政治權力(political power)과의 相關關係를 살펴 보기로 한다.

## (2) 國力과 政治權力

R. Maciver 에 의하면 政治權力은 社会權力의 一種이면서도 가장 包括的이며 根本的이며 다른 社会權力을 吸收하여 統合한다는



점에 餘他の 社会權力과는 다른 特質을 가지며 H.Lasswell 은 政治權力을 實質的 權力和 形式的 權力 即 強制력과 權威로서 構成된다고 한다. 6)

強制는 精神的 肉体的 및 社会的 強制的 세가지로 大別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社会的 強制는 두가지의 形式 다시 말해서 첫째로 社会的 價値에 대한 尊重의 觀念으로서 儀式·慣習·宗教 및 法과 같은 規範의 強制이며 둘째로는 社会的 組織的 實力 即 國家權力을 基盤으로는 警察이나 軍隊와 같은 實力에 의한 壓迫이다. 反面에 있어 權威는 象徴의 體系를 意味하며 象徴은 權力行使를 設定하며 變更하며 또 維持케 함으로써 政治에 있어 重大한 役割을 한다.

이와같이 政治權力이 強制력과 權威로서 構成되며 또 政治權力을 하나의 힘으로 본다면 強制력과 權威의 兩者는 構造와 機能上으로 보아 힘의 内外의 兩側面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強制력을 政治權力的 外面化라고 한다면 權威는 그의 内面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權威가 内面化된 것이라고 함은 強制라는 外的인 힘을 社会成員이 그것을 스스로 正統的인 것으로 받아들일것금 内部的 強制로 轉化한 것임을 意味한다.

普通 強制력은 軍隊나 警察과 같은 強制裝置로서 되어 있으며 이것이 發動되면 軍事力이나 暴力과 같은 實力으로 表現된다. 다시 말해서 平時에 있어 強制력은 強制裝置로 되어 있는 發動以前의 潜在力을 意味하기 때문에 物質的이며 計量的인 要素와 關聯되

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反面에 있어 權威는 政治的 心服을 가져오기 위하여 特定한 秩序를 이루고 있는 象徵의 体系이며 政治集團의 拘束的인 觀念体系이다. 따라서 權威는 象徵的이며 政治的 神話나 「이데올로기」를 包含하기 때문에 주로 精神的이며 따라서 非計量的인 要素와 關聯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政治權力이 強制力과 權威로서 構成되며 權威가 주로 無定形한 非計量的인 精神的 要素와 關聯되고 強制力이 物質的이며 計量的인 要素와 關聯되어 있다는 点에서 便宜上 政治權力을 物質的 精神的 要素의 混合物로서 国家政策의 遂行을 위하여 動員할 수 있는 國家의 總體力量인 國力の 次元에 還元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力の 要素中 物質的이며 計量的인 要素는 政治權力의 強制力化로서 集中表現되는 反面에 精神的이며 非計量的인 要素는 權威로서 集中表現된다. 이리하여 國力 亦是 強制力과 權威로 轉換된다. 그리고 國力이 国家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있어서의 先行條件인 限에 있어서 強制力과 權威는 多같이 國際政策의 手段으로서 前者는 強制的 手段으로서 또 後者는 그 合意的인 手段으로서 各己 利用된다. 이것을 逆으로 政治權力을 國力の 次元에 還元시켜 생각한다면 政治權力이 지니는 強制力은 国家政策의 強制的 手段이 되는 反面에 權威는 그의 合意的인 手段이 된다. 對外關係에 있어서 国家政策의 典型的인 強制手段은 軍事力이며 反面에 있어 合意的인 手段은 國際機

構・制度・外交交渉・國際法的 措置等이다. 그리고 国内政治에 있어서 強制的 手段으로서는 刑罰이나 警察을 들 수 있으며 合意的인 手段은 合理化의 象徴과 同一化의 象徴을 操作함과 同時에 政治權力의 새로운 受益者를 造成하여 國民의 自發性和 同調性을 자아내는데 있다.

國家政策의 執行에 있어서는 「테크닉」의 選擇範圍가 廣範하여야 한다. 狀況에 適合하며 政策目標를 가장 理想的으로 達成할 수 있는 「테크닉」의 選擇이 가장 重要하며 國家는 政策執行에 있어서 狀況과 国力을 充分히 考慮해야 한다. 国力이 國家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있어서 先行條件이라 함은 이 때문이다.

모든 政策은 目的과 手段의 調和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国力은 國家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있어서 先行條件임과 同時에 그 手段이기도 하다. H.Lasswell은 國家政策을 네개의 範疇로 分類하여 첫째 軍事政策의 目的은 戰爭에 勝利하는데 있으며 그 明確한 手段은 暴力이며 둘째로 對外政策의 目的은 그의 實質的 性格은 어쨌던 간에 當事國 間에 合意에 到達하는데 있고 그 明確한 手段은 協力이며 셋째 經濟政策의 目的은 生産에 있고 그 明確한 手段은 生産機械이며 그리고 넷째로 「이데올로기」政策의 目的은 國家가 國民에 對하여 願하는 바 態度를 形成하는데 있고 그 明確한 手段은 象徴이라고 하였다. 이들 國家政策의 諸手段의 統合的인 總體가 바로 国力이다. 따라서 國家政策의 円滑한 遂行은 國家政策의 手段 即 国力의 效果的인 培養과 活用に 달려 있으며

國際政治學 教科書에 있어서의 典型的인 國家政策의 手段의 分類에  
서는 国力을 外交·經濟·軍事·「이데올로기」의 네가지 範疇로 分  
類하고 있음을 附言해 둔다.

그러면 다음에는 具體적으로 国力의 構造와 分類에 대한 學者들  
의 見解를 檢討하기로 한다.

### (3) 國力の 構造·分類

國力の 構造·分類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基準에 따라 多樣하  
게 分類하고 있는것이 學者들의 實情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그의  
一般的인 傾向을 알기 위하여 代表的인 몇個의 分類方式을 檢討하  
기로 한다.

#### (가) 物理的 強制性 與否를 基準삼는 分類

이 방식이 政治權力의 構造를 說明하는데 通用되는 가장 典  
型的인 分類方式으로서 H.Lasswell이 政治權力을 物理的 強制性을  
基準삼아 強制力과 權威로 分類한다는 것은 위에 言及한 바와 같다.  
強制力과 權威는 政治權力의 構造를 이루는 두個의 別個的인 要素  
라기 보다는 權力的 두個의 側面이라고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強制力은 普通 軍隊·警察·矯導所와 같은 強制裝置로서 存在하며  
일단 이것이 發動되면 實力으로 나타남으로써 이것은 未發動狀態에  
있는 強制裝置化된 潛在能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潛在能力은 資源·産業·国土와 같은 여러가지의 要素로서 形成되며 이것이 国力化하기 위하여서는 強制裝置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強制力은 潛在力量이기 때문에 平常時에는 그의 正確한 計算이 거의 不可能하며 戰爭의 勝敗로서 그것에 대한 事後 判斷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国力의 分析·評價의 至難性을 立證하는 것이다.

權威는 政治的 服從을 隨伴하기 위한 象徴의 體系라고 하였거니와 이것이 拘束的인 觀念體系인 限에 있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神秘性이나 非合理性 또는 情緒性을 가지는 限에 있어서는 하나의 神話로서의 性格도 지니게 된다. 어쨌든 權威는 어떤 拘束的인 心理狀態를 말하기 때문에 心理的인 世界로 부터 行動的인 社會表現의 世界로 이르러 비로소 完結되는 것이다.

C. Merriam 教授는 人間이 理性的인 存在인 限에 있어서 人間이 人間을 支配한다는 것은 理性的이며 合理的인 根拠에 의하여 正當化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反面에 情緒的이며 不合理的인 存在이며 秩序에 대한 歸屬感과 情緒的인 連帶感없이는 持續될 수 없다고 前提하고 前者의 要求에 対応하는 것이 「Credenda」이며 後者の 그것이 「Miranda」라고 하였다. 「Credenda」는 權威의 持續을 위하여 同意하겠음 知性을 拘束하며 理性을 包含하는 反面에 「Miranda」는 感情과 同一化를 위한 象徴이다. 다시 말해서 禮讚과 熱狂을 자아내며 忠誠心을 增大하여 相互 同一化와 連帶意

識을 造成하기 위하여 驅使되는 象徴이다. 따라서 「Credenda」를 合理化를 위한 象徴이라고 한다면 「Miranda」는 同一化를 위한 象徴이다. 이 兩者는 古來로 부터 政治權力の 正統性的 契機로 되어 왔다. 그러나 近代에 들어옴에 따라 이 兩者는 渾然 一体의 狀態로 부터 分化되어 「Credenda」는 天命이나 神授權과 같은 超越的 非合理的인 것으로 부터 國民의 同意라는 內在的이며 合理的인 것으로 變遷하여 宣傳의 手段으로 化하여 가고 있다. 反面에 있어 「Miranda」는 支配層에서 權力の 安定에 必要한 情緒的 反應을 造成할 뿐만 아니라 成員의 感情的 一体感을 造成한다. 이와같은 正統性的 契機는 權力の 維持 및 行使를 위하여 健全한 基盤이 되는 것은 暴力이 아니라 政治的 教義에 權力の 支配를 密着시켜야 함을 示唆하는 것이다.

#### (나) 構成要素를 基準으로 삼는 分類

Raymond Aron은 ① 空間 ② 可用資源 ③ 人口 그리고 ④ 集團의 行動能力的 四個要素로서 国力이 構成된다고 하였다.<sup>8)</sup>

W.W.Kulski는 ① 規模·位置·地形 ② 經濟的 資源과 原料 ③ 技術的 資源 ④ 潛在的 軍事力 ⑤ 人口의 性格 ⑥ 指導者와 엘리트의 質 ⑦ 工業力 ⑧ 陸·海·空의 輸送能力으로 国力이 構成된다고 하였다.<sup>9)</sup>

Veron Van Dyke는 ① 地理的 基盤 ② 經濟體系 ③ 科學的 및 發明의 潛在力 ④ 武裝力 ⑤ 人口의 基盤 ⑥ 政府의 組織과

行政 ⑦ 思想 ⑧ 生産能力 ⑨ 戰略的 位置 ⑩ 輸送 및 커뮤니케이션 ⑪ 情報를 그 構成要素로 들고 있다. 10)

Norman D. Palmer 및 Howard C. Perkins는 ① 地理 ② 自然資源 ③ 技術 ④ 人口 ⑤ 士氣 ⑥ 리더십 ⑦ 「이데올로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11)

「슈타인벡트」는 ① 人口의 多寡와 그 構成 ② 領土의 大小 ③ 財富 ④ 政治制度와 指導力 ⑤ 國民의 統合과 團結力 ⑥ 國威 ⑦ 士氣를 포함시키고 있다. 12)

「뤼셔」는 政治的 要素로서 ① 地理的 位置 ② 國土의 大小 ③ 國民의 數와 密度 ④ 組織技術과 文化水準 ⑤ 國境線의 種類와 隣接國의 態度를 들고 心理的 要素로서 ① 國民의 忍耐力과 適応力 ② 經濟的 伸縮性과 發明技能을 들고 經濟的 要素로서 ① 土地의 肥沃度 ② 地下資源 ③ 産業組織 ④ 技術水準 ⑤ 商業과 交通의 發達 ⑥ 財政力을 들고 있다. 13)

「스파이크만」은 ① 國土의 크기 ② 人口 ③ 境界線의 性格 ④ 資源 ⑤ 經濟의 開發程度 ⑥ 財政力 ⑦ 技術의 發達 ⑧ 民族의 同質性 ⑨ 社會의 統合性 ⑩ 政治的 安定을 들고 있다. 14)

Charles Lerche教授는 有形的 要素와 無形的 要素로 區別하고 前者에 ① 地形과 規模 ② 人口와 人的資源 ③ 資源 ④ 産業과 生産能力 ⑤ 軍事組織을 포함시키고 後者엔 ① 制度 ② 科學技術과 教育水準 ③ 國民士氣 ④ 戰略的 地位를 各各 包含시키고 있다. 15)

Hans Morgenthau는 ① 地理 ② 天然資源 ③ 産業能力 ④ 軍備 ⑤ 人口 ⑥ 国民性 ⑦ 国民士氣 ⑧ 外交의 質 ⑨ 政府의 能力을 包含시키고 있다. 16)

A.F.K.Organski는 自然的 要素와 社会的 要素로 兩分하여 自然的 要素에는 ① 地理 ② 資源 ③ 人口 그리고 社会的 要素에는 ① 經濟發展 ② 政治制度 ③ 国民士氣를 各各 包含시키고 있다. 17)

Frederick H.Hartmann은 ① 人口的 要素 ② 地理的 要素 ③ 經濟的 要素 ④ 歴史的·心理的·社会的 要素 ⑤ 組織的 行政的 要素 ⑥ 軍事的 要素를 各各 包含시키고 있다. 18)

이와같이 專門家들의 分類方式에 있어서 그 變數가 多樣하면서도 어느 程度 共通性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国力의 構成要素에 대한 分類上의 差異는 여러 構成要素에 있어서 強調點의 差異를 反映한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들 分類에서 發見할 수 있는 두 드러진 特徵은 国力의 構成要素에서 軍事力을 強調하지 않은 專門家는 있어도 空間(地理 또는 領土), 資源 그리고 人口를 強調하지 않는 專門家는 없다는 事實이다. 国力의 構成要素에 있어서 空間(領土)와 人口를 共通的으로 強調하는 것은 国土分断의 政治的 与件속에 鎮痛하고 있는 우리 民族에게 커다란 示唆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民族國家의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政治的 發展을 위한 가장 基本的인 條件이 되는 것이 領土의 크기와 人口의 規模라는 뜻이다. (뒤에 詳述) 어쨌든 強調點



의 差異는 있어도 国力이란 計量的인 要素이던 非計量的인 要素이던, 物質的인 要素이던 精神的인 要素이던 또는 強制的인 手段이던 合意的인 手段이던 間에 모든 構成要素의 總体力量을 意味한다는 點에 그들의 共通性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安定·社會的 流動性を 強調하는 見解

安定과 社會的 流動性を 強調하는 代表的인 學者는 Karl W. Deutsch教授이다. 19)

그는 國際關係의 研究에 關聯된 二個의 領域인 安定과 能力 (Capability)과의 關係를 量的 方法을 適用, 分析함으로써 國家 類型體系를 設定하고 있다. 그는 安定과 能力의 密接 不可分の 關係를 指摘하고 概念定義에 있어 「安定」이란 特定한 國家가 他國 또는 自國民의 壓力에 대하여 어느 程度 安定되어 있으며 그의 政府가 國內적으로 顛覆의 可能性이 어떠한가를 意味하며 反面에 있어 「能力」이란 特定한 國家의 他國에 대한 能力 또는 自國民에 대한 그의 政府의 能力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安定과 能力의 不可分の 相互依存關係에서 安定없이는 政府의 能力은 低下되어 極端적으로는 零으로 되는 反面에 또한 充分한 能力없이는 政府가 對內外的인 挑戰에 直面하여 그 安定을 維持하기 困難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安定과 能力의 相互依存性を 前提로 能力의 增加를 위한 條件으로서 社會的 流動性 (Social mobilization)의 增大를

들며 다음과 같이論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能力的 增大는 商品 및 勞動의 國際市場에 대한 參與의 增大 및 貨幣使用·産業化·都市化·社会的 커뮤니케이션·文字 解得率·大衆媒介체의 聽衆으로서의 參與, 政府와의 接觸, 그리고 政治에의 關心과 參與의 增大와 같은 國民의 社会的 流動性的 增大를 要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流動性은 一般的으로 欲求와 期待의 增大에 依하여 隨伴되며 이 欲求와 期待는 安定이 維持되면 挫折되지 않는다」<sup>20)</sup>

그는 이렇게 能力的 增加를 위한 要件으로서 社会的 流動性的 增大를 들고 또 安定的 維持를 위해서는 社会的 流動性的 增大에 依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隨伴해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即 첫째로 國家全體 - 또는 적어도 社会的 流動性的 過程을 增大하며 政治적으로 重大한 役割을 하는 階層을 위한 平均所得의 充分한 增大, 둘째 迅速히 增大하는 對內外的인 義務와 責任에 관한 中央政府의 能力的 充分한 增大<sup>21)</sup>를 隨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國家의 能力은 具體적으로 ① 國家 또는 政府가 國際的 義務를 遂行할 能力(負債의 支払, 軍의 派遣, 法的保護等) ② 他國에 대하여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被害를 입힐 能力(經濟的 軍事的 그리고 宣傳上的 潛在力量) ③ 特定한 國內政策 또는 改革을 遂行할 政府의 能力(預算均衡, 인플레이션의 抑制, 完全雇傭의 維持, 土地의 再分配, 人口成長의 減少, 軍事力의 增強, 教育의 增進, 經濟發展促進等) 그리고 ④ 特定한 國家 또는 政府가 他國

또는 그의 政府와 部分的 또는 全面的으로 協調할 能力을 包含한다고 主張한다.

## (라) 機能的 分析

機能的 分析의 代表的인 學者는 元來 地政學者였던 Harold Sprout와 Margaret Sprout 夫妻이며 그는 힘의 概念說明에 있어서 다른 學者에 比하여 몇個의 特性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로 이들 夫妻는 權力(power) 또는 国力(national power)의 用語에 代身하여 核時代의 새로운 軍事狀況을 카버하기 위하여 政治的潛在力量(political potential)이라는 새로운 用語를 使用하여 概念을 設定하고 있다. 22)

그는 從來에 國際政治에 있어 힘(power)이라는 用語는 첫째로 軍事的인 含蓄性을 強力히 지니며 둘째로 國家는 軍事行動 以外의 다른 方法에 依하여서도 他國의 行動에 影響力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셋째로 核武器의 發達로 軍事行動에의 依存이 膠着狀態에 빠져 있는 傾向이 있음을 指摘하면서 power라는 用語의 使用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그렇다고 해서 國際關係가 目標나 利害의 葛藤을 包含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같은 目標나 利害의 葛藤을 包含하되 暴力이나 그의 威脅이 없는 國際關係를 表現하기 위하여 影響力(influence)이라는 非軍事的인 用語로서 概念說明을 해야 한다고 強調한다.

이리하여 이들은 軍事的인 含蓄性을 強力하게 지니는 힘(power)

이라는 用語와 더불어 非軍事的인 概念인 影響力(influence)이라는 用語를 다같이 使用하여 이들 power와 影響力(influence)을 다같이 카버하는 새로운 用語로 政治的潛在力量(political potential)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国力은 概念上 軍事的인 힘(power)과 非軍事的인 影響力(influence)을 다같이 카버하는 政治的 影響力(political potential)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政治的潛在力量은 未發動狀態에 있는 潛在的인 力量을 決코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따라서 政治的 潛在力量과 概念上 對照的인 政治的 承服(political deference)이라는 概念을 提起하고 있다. 政治的 承服은 어떤 國家가 他國의 特定한 要求(demand)에 대하여 順應하느냐 默認하느냐를 概念上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政治的 承服은 概念上 單純한 未發動狀態의 潛在的인 力量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實質的으로 觀察할 수 있는 結果的인 「產出效果」를 意味하고 있다. 潛在力量은 現在하지 않지만 一朝有事時 어떤 可能性을 가진 力量을 意味한다. 例하면 軍事的 潛在力量, 또는 戰爭潛在力量(war potential)은 未發動狀의 戰爭遂行能力(war-making capacity)을 意味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結果를 重要視하는 이들은 政治的潛在力量을 未發動狀態의 能力(capacity)이나 또는 潛在力量(potentiality)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觀察할 수 있는 結果라는 것이다.

둘째의 特性은 國際關係를 힘의 關係로서 만이 理解하려는 現實

主義 立場과는 달리 「要求·対応」(demand-response)의 行動關係로 理解하고 힘 그 自体를 行動關係의 概念으로 概念設定을 試圖하고 있다. 23)

이들의 이러한 概念上的·立場은 이들에게만 獨特한 것은 勿論 아니다. 이들은 Samuel H. Beer가 政府와 政治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政治理論에서 提起한 힘의 概念을 國際關係에 援用, 擴大하여 適用하고 있다. Beer教授가 政治理論에서 提起한 權力の 概念을 援用하여 權力の 概念이 量的인 概念에서 行動關係(behavioral relationship)의 概念으로 轉換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이들 夫妻는 本質적으로 國際關係를 概念上 相互作用(interaction)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結局 國際關係란 「要求·対応」關係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夫妻는 基本的으로 힘의 潛在性을 問題視하기 보다는 國際關係를 「要求·対応」의 行動關係라 規定하여 힘을 行動關係에서 나타난 産出結果로서 만이 評價하려 한다. 따라서 特定한 國家의 能力이란 「要求·対応」의 行動關係에 있는 相對國의 能力에 對하여 相對的인 概念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特性은 機能的 分析을 主張하는데 있다. 힘을 相對的인 概念으로 보면서도 國際關係를 國家間的 相互作用으로 보는 이들 夫妻는 國際關係에 있어서 軍事的 要素에 對한 지나친 強調에서 오는 弊端을 除去하기 위하여 國家間的 相互作用을 機能的으로 分析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國際關係의 機能的 分析을 위하여서는 ①

利用되는 手段 ② 利用되는 技術 ③ 技術을 驅使하는 目標 ④  
結果 即 所望하던 結果와 産出된 結果를 分析해야 한다고 主張한  
다. 24)

「手段」에는 非人間的인 것과 人間的인 것의 두가지가 있다고  
前提하고 前者에는 意思疎通手段·理念·科學技術情報·強制 및 破壞  
手段 그리고 食料品·原料·資本施設과 消費品과 같은 物資를 包含  
시키고 後者에는 外交·軍事 그리고 公共關係에 관한 政府機關과  
人士 및 非政府機關과 人士~ 銀行·保險·教育·科學技術·言論에  
從事하는 人士~를 包含시키고 있다.

「技術」에 있어서는 利用되는 手段을 基準으로 하는 分類에  
있어서

① 意思疎通에 關한 技術로서

㉠ 協商(外交와 議會) ㉡ 一方的인 政策宣言 ㉢ 特定한  
政策에 關聯된 것이 아닌 公共活動 ㉣ 心理的 攻擊(破壞活動과  
士氣에 關한 攻擊)을 들고 있다.

② 理念 및 科學技術의 知識에 關한 技術로서

㉠ 科學技術의 展示會, 그리고 展覽會와 같은 것을 통한  
社會実績의 誇示 ㉡ 軍事活動을 위한 援助 ㉢ 기타의 技術援助  
活動을 든다.

③ 非軍事的 物資 및 「서비스」에 關하여서는

㉠ 借款이나 贈與를 통한 物資 및 「서비스」의 提供  
㉡ 「보이콧트」나 禁輸를 통한 物資 및 「서비스」의 拒否 ㉢

其他의 形態의 經濟活動을 들고 있다.

④ 強制 및 破壞에 관한 技術에 있어서

㉠ 怠業 ㉡ 武器의 展示나 軍事活動의 威脅을 통한 抑制  
㉢ 軍事的 介入이나 制限戰爭을 통한 制限的 軍事作戰 ㉣ 全面戰  
爭戰略에 依한 無制限 軍事作戰을 들고 있다.

네제의 特性은 國家能力(State capability)을 다섯個의 機能的  
範疇로 分類하고 있다는 點이다.<sup>25)</sup> 다시 말해서 國家能力을 機能  
的으로 ① 情報提供機能 ② 決定作成機能 ③ 手段提供機能 ④ 手  
段活用機能 그리고 ⑤ 「要求·抵抗機能」(resistance to demands  
function)으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情報提供機能부터 論하기로 한다. 모든 國家나 그  
의 政府는 狀況判斷을 基盤으로 自己의 要求를 形成하여 그 要求  
의 貫徹를 위하여 어떻게 支援할 것이냐를 構想하며 또 이와는  
反對로 相對國에 依하여 自國에 課하여지는 要求에 抵抗하기 위하  
여 組織化하게 된다. 이들 業務의 遂行을 위하여서는 情報를 蒐  
集하여 分析하고 保管하여 計劃을 作成한다. 따라서 國家政策의  
目標選定과 行動을 위하여서는 情報提供機能이 가장 重要한 先決條  
件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는 決定作成機能이다. 決定作成機能에 있어서 過去에 어떠  
한 行動方針을 試圖하였고 또 앞으로 어떠한 行動方針을 試圖할것  
이냐의 問題도 重要하지만 더욱 重要한 것은 決定作成機構와 政府  
의 現實이 어떻게 國際的 成敗의 根源이 되느냐에 관한 關心이라

고指摘하고 있다. 이들 夫妻는 「政治는 可能性에 関한 技術」이라고 前提하고 따라서 모든 國家나 政府는 國家存立이 根源的이며 普遍的인 價値라는 것과 努力을 節約해야 한다는 原則아래 政策樹立體系가 最少限度의 冒險으로 可能한 政策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가장 效果的으로 手段과 技術을 配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決定作成機能은 目標을 闡明하고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과 技術을 效果的인 「戰略」(strategy)에로 配合시키는 能力이 重要하며 이 能力이 바로 決定作成機能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決定作成機能에 戰略의 概念을 導入하였음은 우리의 注目を 끌며 學者이면서 實務的인 洞察力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는 手段提供機能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것은 採択된 戰略의 補完을 위하여 實質的으로 必要한 人間的 그리고 非人間的인 諸手段을 提供·配合하는 能力이다. 따라서 아무리 戰略이 合理的으로 樹立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多分히 原則的이며 概念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手段提供機能이 充分치 못하면 可用한 모든 資源과의 具體的인 聯関性이 없으므로 實踐에 옮길 수 없거나 不然이면 期待되는 目標을 達成할 수 없는 紙上 戰略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는 手段活用機能이다. 위에 言及한 手段提供機能이 充分하여 必要·充分한 모든 可用資源이 人的 物的으로 提供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活用할 機能이 充分치 않으면 意味가 없다. 따라서 手段活用能力 다시 말해서 提供된 手段을 效果的으로 結合하여 活



用하는 能力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要求·抵抗機能」이다. 이것은 行動關係에 있는 相對國의 要求를 回避하며 그의 壓力에 抵抗하여 軍事的 非軍事的인 모든 攻擊을 防禦하며 緊張과 破局의 條件아래 自國의 行動을 政策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實踐하는 能力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Sprout 夫妻는 國家能力을 다섯個의 範疇로 機能別로 分類하고 있거니와 이것을 다음과 같이 圖表化할 수 있을 것이다. 26)

「國家能力 分析 및 國家能力 比較」

分析·比較國家: → A                      B                      C

比較할 能力의 側面



(1) 情報提供機能	(1)	$\frac{At_1}{At_2}$	$\frac{Bt_1}{Bt_2}$	$\frac{Ct_1}{Ct_2}$
(2) 決定作成機能	(2)	$\frac{At_1}{At_2}$	$\frac{Bt_1}{Bt_2}$	$\frac{Ct_1}{Ct_2}$
(3) 手段提供機能	(3)	$\frac{At_1}{At_2}$	$\frac{Bt_1}{Bt_2}$	$\frac{Ct_1}{Ct_2}$
(4) 手段活用機能	(4)	$\frac{At_1}{At_2}$	$\frac{Bt_1}{Bt_2}$	$\frac{Ct_1}{Ct_2}$
(5) 要求·抵抗機能	(5)	$\frac{At_1}{At_2}$	$\frac{Bt_1}{Bt_2}$	$\frac{Ct_1}{Ct_2}$

過去에 있어서 国力에 관한 專門家들의 主된 關心은 軍事的인 要素를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軍事的인 強弱点의 評價에 두어져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軍事的 要素에 대한 지나친 強調에서 오는 弊端을 덜기 위하여 軍事的 要素와 非軍事的인 要素를 다같이 카버하기 위하여 政治的 潛在力量이라는 새로운 用語를 使用하면서 國際關係를 「要求·抵抗」의 行動關係로 規定하고 國家能力을 機能的으로 分析하였다. 따라서 過去の 通俗的인 典型的인 見解에 있어서는 Sprout教授의 機能的 分析의 範疇에 비추어 본다면 手段活用能力和 抵抗能力에는 어느 程度로 關心이 두어졌으나 手段提供機能만이 아니라 特히 情報提供機能과 決定作成機能에는 거의 關心이 주어져 있었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故로 이러한 通俗的인 見解에 있어서는 過去에 어떠한 行動이 試圖되었느냐에 關한 敘述的인 說明에 그치는 느낌이 없지 않았으며 特定한 國家의 決定作成機能이 他國과의 相互作用에 있어서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서는 그리 큰 關心이 없었다. 이러한 點에서 그의 見解는 어느 點에 있어 批判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래도 새로이 參考가 되는 點이 적지 않다 함은 筆者의 率直한 見解의 表現이다.

#### (마) 地政學的인 計量的 比較分析

이것의 代表的인 學者는 美國 조지타운大學 戰略國際研究所 研究部長인 Ray S. Cline 博士이다. 그는 實務的인 洞察力을 가지고 地政學的인 觀點에서 世界의 政治構造를 分析하여 世界 各國의 權力關係를 計量化하여 比較 分析하여 国力을 基準으로 序列化하고 있다. 從來에 国力에 관한 專門家들의 見解는 多分히 概念的인 것이어서 概念定義는 할 수 있어서 이것을 實際作業에 適用하는 것은 전혀 別個的인 問題였으므로 本質的인 隘路가 있었다. 그러나 이 計量的 比較分析은 各國의 国力評価를 可及的 計量化하여 比較 分析을 試圖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隘路를 덜어 줄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러한 計量分析이 動態的 機能的인 分析이 아니라 靜態的 總括的 比較分析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數量化에서 오는 弊端이 있음을看過하여서는 아니된다.

今日의 世界에 存在하는 158 個의 主權國家에 依하여 形成되는 國際的인 權力關係를 比較分析하기 위하여 Cline 氏는 「Politectonics」라는 새로운 用語를 使用하고 있음은 매우 興味로운 일이다. 그에게 있어서 Politectonics 라는 새로운 用語는 國際的인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構造를 그의 立場에서 說明하기 위한 用語로서 “Poli”는 政治이며 tectonics 라는 用語는 一般적으로 構造를 意味하며 特殊하게는 地政學에서 말하는 地殼의 變動構造를 意味한다. 이와 같이 地政學上의 用語를 援用하고

있음은 地政学的인 観点에서 國際關係를 比較分析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地政学的인 観点에서 世界를 11個의 地域으로 区分하고 있다. 即 ① 北美 ② 蘇聯 ③ 中国·北韓·印支 ④ 西歐羅巴 ⑤ 中東 ⑥ 東亞細亞 ⑦ 東南亞細亞 ⑧ 北東亞細亞 ⑨ 南亞細亞 ⑩ 中南阿弗利加 ⑪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그것이다<sup>27)</sup>. 이처럼 世界를 11個의 政治構造地域(politectonic zones)으로 分類하여 國家別·地域別로 比較分析하고 있다.

이미 檢討한 바와 같이 国力이란 政治·經濟·文化·軍事·社会心理·科学技術等 많은 要素로서 構成되어 있거니와 Cline 氏는 이들 構成要素를 3大要素로 大別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即 国力評價의 「公式은 다음과 같다.  $P_p = (C + E + M)$

$\times (S + W)$

따라서 그의 用語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P_p$  = 認識된 힘

C = 臨界質量(critical mass) = 人口 + 領土

E = 經濟能力(economic capability)

M = 軍事能力(military capability)

S = 戰略目的

W = 國家戰略 追求意思」<sup>28)</sup>

国力을 基本的으로는 人口와 領土로서 構成되는 臨界質量을 비롯하여 經濟能力·軍事能力·戰略目的·追求意思의 5個要素로서 構成된다고 前提하고 이것을 다시 3大要素 即 ① 人口와 領土로 構成

되는 臨界質量 ② 經濟能力과 軍事能力으로 構成되는 能力的要素  
③ 戰略目的 및 戰略目的 追求意思로서 構成되는 意圖的要素라는  
3大要素로 包括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Cline의 公式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要素로 되어있는 臨界  
質量(critical mass)은 人口와 領土를 意味한다. 앞에서 言及  
한 바와 같이 国力에 있어서 基本的인 要素로써 人口와 領土를  
于先的으로 들고 있음은 우리의 關心을 끈다. 國家의 統治權下  
에 있는 領土의 規模와 그 領土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으로  
지탱되고 있는 人口의 크기가 国力의 基礎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다. 国力을 評價하는 첫째의 要素로서 人口를 들어 各國을  
計量的으로 評價하여 人口別 序列表를 作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世界에서 第1位는 中共, 第2位는 印度, 第3位는 蘇聯  
그리고 第4位는 美國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国力의 構成에  
있어서 基本的인 또 하나의 要素로 되어있는 領土를 基準으로  
하여 序列表를 作成하고 있다. 領土의 規模가 큰 나라는 原料  
資源이 豊富한 境遇가 많으며 國家에 따라서는 그의 地理的 位  
置 特히 戰略的 地位의 重要性을 가지는 海上交通路를 保有하는  
印尼나 「이란」에 對하여 더 加點을 하고 있음은 興味로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領土의 規模를 基準으로 하는 序列表에 있  
어서 世界에서 第1位는 蘇聯, 第2位는 「카나다」, 第3位는 中  
共 그리고 第4位는 美國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人口와 領土  
의 規模를 基準삼아 各各 그의 序列表를 作成한 다음에 다시금

이 두個의 要素를 합친 基本要素(臨界質量)를 基準으로 한 序列表를 作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世界에서 第1位가 蘇聯, 第2位가 美国, 第3位가 中共 그리고 第4位가 印度로 되어 있고 이러한 國家別 序列表 외에 地域別 序列表를 作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世界에서 第1位の 政治構造地域은 北美地域이고 第2位가 蘇聯 第3位가 中国 그리고 第4位가 西欧羅바로 되어 있다<sup>29)</sup>. 人口와 領土의 規模를 합친 世界序列表에 있어서 우리 韓國이 第37位이고 北韓이 第45位로 되어 있다.

人口와 領土를 합친 國力の 基本要素 다음에 둘째의 構成要素는 經濟能力이다. 經濟能力은 國民을 財貨나 「서비스」로서 滿足시키며 組織된 軍事力을 構築하는 基礎이다. 軍事力을 經濟能力 속에 包含시키고 있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特色이다. 人口와 領土의 指標를 數量的으로 表示하는 것은 어느 程度 쉬운 것이지만 經濟能力의 指標를 數量的으로 表示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 世界에는 自由經濟와 統制經濟라는 두個의 異質的인 經濟體制外에 이 兩者體制의 折衷型인 混合經濟體制도 있어 여러가지의 複雜한 要因이 있다. 따라서 Cline 氏는 이러한 體制上의 差異를 超越하여 經濟能力을 評價하는 指標로서 ① GNP ② 「에네르기」 ③ 鉍物 ④ 工業力 ⑤ 農業 ⑥ 貿易을 들고 있으며 이들 여섯個의 要素에서 GNP를 가장 重要視하고 다음에 「에네르기」를 들고 있다<sup>30)</sup>.

「에네르기」는 그것을 充分性·自給力과 依存性과의 「플러스」·「마이너스」의 兩面에서 把握하며 「에네르기」源으로서는 石油·石

炭·原子炉의 세가지를 重要視하고 있다.

鎳物에 있어서는 重要的 資源은 ① 鐵鎳石 ② 精鍊銅 ③ 「보키사이트」 ④ 「그롬」鐵鎳 ⑤ 「우라늄」을 들고 그 중에서도 鐵鎳石을 가장 重要視하고 있다.

工業力의 指標로서는 ① 鐵鎳石 ② 「아루미늄」의 두가지 要素를 重要視하여 鐵을 国力의 中樞的 要素로 보고 있다.

食料의 指標에 있어서는 ① 小麥 ② 쌀 ③ 옥수수의 세가지 要素를 重要視하면서 그의 耕作地 面積·生産量 그리고 耕作地 面積當 生産力, 純輸出入량을 比較하고 있다. 今日的 世界에 있어서 戰略物資는 石油·鐵鋼·食料라 할수 있다는 事實에서 이러한 分類는 그 意義를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貿易의 指標로서 ① 輸出額 ② 輸入額 ③ 全体貿易額 ④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比率의 네가지 要素를 들고 있다.

國家間의 紛爭의 終極的인 強制力은 軍事力 行使이다. 國家間의 紛爭은 처음에는 宣傳戰이나 外交壓力으로 始作되며 다음에는 重要的 經濟的 利益의 提供과 停止로 進行되지만 紛爭이 死活的 利害에 關聯된 것이면 戰爭으로 까지 擴大된다. 그는 이러한 軍事力을 構成하는 決定的인 要素로서 核武器와 在來式 武器를 들고 있다. 이처럼 그가 世界 各國의 国力을 計量的으로 比較 分析하면서도 核武器에 1次的인 關心을 두는 것은 特히 軍事力의 境遇에 있어서는 美·蘇 超強大國에 主된 關心이 있기 때문이다. 美·蘇의 核戰力을 比較하는 要素로서 ① 核彈頭·爆彈의

数量 ② ICBM·SLBM·爆撃機の 数を 重要視 한다. 核保有国으로서  
서는 美·蘇外에 英国, 仏蘭西, 中共을 比較 檢討하고 있다. 兵力  
指數를 算定함에 있어서 美·蘇의 核戰力の 各 構成要素의 數量的  
比較를 詳細히 하고 있다. 다음에 在來式 兵力의 指數를 算定함  
에 있어서 總兵力數를 基礎로 하여 ① 人力의 質 ② 兵器効率  
③ 下部構造와 兵站 ④ 組織의 質이라는 네가지 要素를 加味하여  
戰鬪能力指數 (equivalent units of combat capability)를 算定  
하고 兵器裝備面에선 ① 戰鬪機 ② 戰車 ③ 艦艇·核潛水艦의 指  
數를 算定하고 있다.

이처럼 Cline 은 經濟能力和 軍事能力의 指標를 各各 算定하여  
計量的으로 比較 分析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經濟能力의 比較分  
析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GNP를 中心으로 하는 世界序列表에  
있어서 第1位는 美国, 第2位는 蘇聯, 第3位는 日本 그리고 第4  
位는 西独이며 「에네르기」面에 있어서는 第1位는 蘇聯, 第2位는  
美国, 第3位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第4位는 中共으로 되어  
있고 主要鉍物에 있어서는 第1位가 蘇聯, 第2位가 「오스트레일리  
아」이고 第3位가 美国 그리고 第4位가 中共으로 되어 있고 鐵  
鋼生産에 있어서는 第1位가 蘇聯, 第2位가 美国, 第3位가 日本  
그리고 第4位가 西独으로 各各 되어 있다<sup>31)</sup>.

以上 經濟能力을 構成하는 各 要素에 관한 国力評價를 한 다음  
에 이들 要素를 合친 全体經濟能力의 指標를 算定한 바 第1位는  
美国이고 第2位는 蘇聯, 第3位는 西独으로 되어 있다<sup>32)</sup>.



이처럼 經濟能力의 指數를 算定하여 序列表를 作成한 다음에는 人口·領土·經濟能力의 3者를 合쳐서 序列表를 作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第1位가 美国, 第2位가 蘇聯, 第3位가 中共 그리고 第4位가 日本으로 되어 있다<sup>33)</sup>.

다음에 軍事力에 관하여서는 어떠한가? 戰略兵器能力에 있어서는 美·蘇가 同点이고 英國·仏蘭西·中共이 또한 同点인 바 後者의 点数은 前者의 10分之1로 되어 있어 그 能力의 隔差를 보여주고 있고 在來式 兵力의 戰鬥能力의 評價를 紙面의 制約上 그 一部만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sup>34)</sup>.

在來式 兵力의 戰鬥能力의 評價

内容 国家	兵力 (单位千)	兵力의質	兵器 効 率	下部構造 ·兵 站	組織力	平均	戰鬥力의 指 數
W P T							
蘇 聯	4,400	0.7	0.9	0.7	0.5	0.7	3,080
폴란드	300	0.6	0.7	0.6	0.5	0.6	180
東 独	204	0.9	0.8	0.6	0.7	0.8	163
N A T O							
美 国	2,086	1	1	0.9	0.8	0.9	1,877
西 独	515	1	0.9	0.9	0.7	0.9	464
仏蘭西	513	0.8	0.7	0.8	0.6	0.7	359
터 키	490	0.7	0.5	0.4	0.5	0.5	245
伊太利	362	0.6	0.5	0.5	0.4	0.5	181

또 著者인 Cline 氏는 世界 76 個國을 地域別로 11 個의 政治 構造地域으로 分類하여 經濟能力·戰略兵器·在來式 兵力을 中心으로 指數를 算定하여 比較分析을 하고 있거니와 그 中에서 우리에게 參考될 一部分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sup>35)</sup>.

地 域 別 國 力 指 數

国家 地域	国家名	基本指數	經濟力	戰略兵器	在來式兵力	計
1	美 國	100	174	100	94	468
	카 나 다	70	26		1	97
2	蘇 聯	100	105	100	97	402
	東 獨	10	7		5	22
3	中 共	100	29	10	32	171
	北 韓	10			12	22
	베 트 남	40			8	48
4	西 獨	50	48		14	112
	仏 蘭 西	55	36	10	11	112
	英 國	55	26	10	8	99
8	日 本	60	46		5	111
	韓 國	30	2		6	38
	台 灣	10	2		11	23

以上은 Cline 氏가 그의 国力評価의 公式에 따라 基礎的인 要素인 人口・領土, 能力的인 要素인 經濟能力・軍事能力에 대한 評価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意圖的 主体的 要素인 戰略目的과 國家戰略 追求意思에 대하여서는 어떠한가? 特定한 國家의 国力이 國家戰略과 國家戰略 追求意思라는 意圖的 要素에 의하여 크게 左右된다 함은 그의 公式에 따라 人口・領土의 基礎的 要素와 經濟能力・軍事能力으로 形成되는 能力的 要素와 이를 主体的, 意圖的 要素 - 戰略과 意思 - 와의 相關關係가 相加關係(+)가 아니라 相乘關係(X)라는 點에서 充分히 理解될 것이다. 假令 意圖的 要素가 零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큰 領土・人口의 基礎的 要素와 經濟・軍事能力的 能力的 要素를 相乘하여도 零으로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國家意思를 形成하는 要素로서 ① 國民의 文化的 統合의 程度 ② 國家指導力 ③ 國家戰略과 國家利益과의 相關關係를 重要視하여 이들 세가지 要素를 거의 同價値로 보고 그의 評價率을 다음과 같이 配定하고 있다. 即

① 國家統合의 水準

㉠ 文化的 統合 25%

㉡ 領土的 統合 8%

② 國家指導力

㉠ 政府의 政策能力 17%

㉡ 社會秩序의 程度 17%

③ 戰略과 國家利益과의 關聯 33%이라는 것이다<sup>36)</sup>.

여기에 問題가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人口・領土의 基礎要素와 經濟能力・軍事能力의 能力的 要素는 相對的으로 어느 程度로 評價될 수 있다 하더라도 相對國의 戰略과 그 追求意思와 같은 多分히 主觀的인 要素의 正確한 評價는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도 이러한 主觀的 要素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도 그의 具體的인 評價方式을 提示치 못하고 있음은 이러한 問題의 至難性을 示唆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는  $P_p = (C + E + M) \times (S + W)$ 의 公式에 따라 世界各國의 国力을 評價하여 그 중에서 56個國의 国力을 最終的으로 序列化하였거니와 여기에서 全體力量에 있어서 蘇聯이 美國보다 優位에 있고 西獨・日本・이란・브라질・中共이 美・蘇 다음에 거의 同等한 地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란」과 「브라질」의 地位는 意外的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다.

## (五) 国力의 分析·評価에 있어서의 考慮要素와 問題點

以上으로 国力의 構造와 分類에 關한 一般的인 傾向을 몇개의 類型으로 集約 整理하여 보았다. 이번에는 이것을 土台로 国力의 分析·評価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原則的 考慮要素와 그것에 따르는 問題點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그러면 먼저 国力의 分析·評価에 있어서의 考慮要素는 무엇일까? 위에 集約 整理한 国力의 構造와 分類에 關한 內容을 基礎로 다음과 같은 考慮要素를 原則上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① 힘(power)은 行動關係의 概念이므로 国力의 分析·評価는 相對國의 그것에 比하여 相對的인 概念으로 分析·評価되어야 하며 따라서 絶對的인 概念에서의 分析·評価는 「다이내믹」한 國家間의 政治關係에서 보아 無意味하다는 것이다. 政治的 共同體로서의 國家는 國際社會에서 「힘의 單位」로 評価되며 國家間의 關係는 힘의 關係이며 따라서 國家의 國際關係에서의 地位는 「힘의 地位」(power position)이다. 그리고 國家活動은 國際社會에서 特定國家를 對象으로 그의 國家目標(national goal) 또는 國家政策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機能이다. 따라서 国力은 相對的이며 特定한 國家의 그것에 比하여 相關關係的으로 把握해야 한다. 國際關係가 힘을 媒介로 하는 行動이고 「힘은 그것을 保有하는 國家目的과 分離될 수 없다」<sup>37)</sup> 고 한다면 國

力은 概念上 絶對的인 概念일 수 없으며 따라서 相關關係的인 概念이다.

② 国力은 客觀的이라기 보다는 心理的이며 相關關係的인 概念이다<sup>38)</sup>. 国力(national power)은 단순히 國家能力(national capability)의 算術的 總計는 아니다. 勿論 国力은 國家能力을 包含하지만 다른 次元의 概念을 또한 內包하고 있다. 能力(capability)은 客觀的인 分析·評價가 相對的으로 可能한 反面에 國家의 힘(power)은 보다 心理的이며 相關關係의 概念에서 評價되어야 한다. 国力의 概念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의 하나는 心理的인 側面에 있다. 왜냐하면 国力은 概念上 他國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他國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생각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相關關係의 面에서 본다면 例하면 어떤 特定한 두 國家가 能力(capability)에 있어서 類似하다 하더라도 이 두 國家가 반드시 힘(power)에 있어서 同一한 것은 아니다. 美·蘇의 類似한 能力이 特定한 國家에 對하여 힘의 影響을 類似하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힘과 能力의 相關關係는 正比例할 수 있는 反面에 反比例할 수도 있다. 어쨌든 国力은 心理的이며 相關關係의 概念이다.

③ 國際關係 또는 特定한 政治的 共同體間의 相互作用을 行動關係로 보고 国力을 相關關係의 概念으로 定義한다면 그의 分析·評價는 宜當 靜態的 分析·評價보다는 動態的 그것이 政治動態 面에

學的 地位는 核時代의 今일에 있어서도 戰略的 地位 設定이라는 軍事의 要素와 密着되어 있다는 事實에 우리는 留意하여야 한다.

⑥ 國力의 分析·評價에 있어서는 安定과 能力(capability)의 相關關係에 대한 評價를 考慮함이 要望된다. 國力이란 相對國과 의 行動關係에서 相對的으로 分析·評價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相

서 더욱 要請될 것이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靜態的 計量的인 分析·評價가 無用하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說明한 Ray S. Cline 氏의 分析에서 본 바와 같이 複數의 國家政策의 目標 가운데서 特定한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國力의 分析이라는 次元에서가 아니라 包括的인 目標遂行의 次元에서 國力을 政治構造 領域別 및 國家別로 總體的·計量的으로 評價하여 序列體系를 定立하는 것도 自國의 힘의 序列地位를 把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國家는 特定한 單一目標만을 追求하는 것이 아니라 同時에 複數의 政策目標를 追求하며 또 國家活動은 停止狀態에 두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總體的·靜態的·計量分析의 未備點을 動態分析에 依하여 補完하는 試圖도 要請된다. 靜態的 分析和 動態的 分析의 有機的 聯關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④ 國力이란 國家機能의 所望스러운 狀態에서의 遂行을 위한 것이며 또 國家가 同時에 複數의 機能을 遂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機能的 分析이 要望된다. 機能的 分析은 위에 言及한 動態的 分析和 密接 不可分離의 相關關係에 있다. 國家機能의 分類는 Sprout 教授는 (1) 情報提供機能 (2) 決定作成機能 (3) 手段提供機能 (4) 手段活用機能 (5) 要求·抵抗機能等 다섯개의 範疇로 分類하고 있거니와 目的에 따라 政治·經濟·軍事·社會心理·科學技術等 要素別 分類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國力의 總體的 分析에 있어서도 包括的인 次元에서 이들 諸機能의 分析이 有益하거니와 國家機能의 個別的인 分析에 있어

리 人的·物的 要素에 있어서 優越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精神的  
 要素가 欠如되면 意味가 없다. 人的·物的 要素와 精神的 要素와  
 의 相關關係는 單純히 「플러스」關係가 아니라 相乘關係에 있으며  
 따라서 精神的 要素가 零이면 人的·物的 要素가 아무리 크다 하  
 더라도 그것과의 相乘關係에 있는 国力은 零일 수 밖에 없다.  
 国力이란 單純히 能力(capability)의 算術的 總計가 아니므로  
 素材 또는 資源으로서의 能力을 産出된 「結果」로서의 힘(power)  
 으로 化하기 위하여서는 産出能力이 必要하며 이 能力에는 産業化  
 나 科學技術과 같은 客觀的·物量的인 要素만이 아니라 主觀的·意  
 圖的 要素 다시 말해서 目標達成을 위한 國家意思 및 戰略目的  
 達成을 위한 意思가 不可欠하다. 能力은 未發動狀態에 있는 힘의  
 素材 또는 資源이며 이것을 發動狀態에 있는 産出結果로서의 힘  
 (power)으로 化하기 위하여 媒介的인 役割을 하는 것이 바로  
 意圖的·主觀的 要素이다. 能力은 客觀的 要素이며 評價할 수 있  
 는 反面에 힘을 主觀的 心理的이며 評價하기 어렵다 함은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国力을 위한 素材 또는 資源인 能力 即  
 國家政策 目標의 達成을 위한 手段提供機能과 手段活用機能이 重要  
 하다고 하더라도 于先的으로 그것을 위한 國家意思가 先行된 다음  
 에 그 能力(戰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國家意思를 構成하는 要素로서 (ㄱ) 國民의 文化的 統合의  
 程度 (ㄴ) 國家指導力 (ㄷ) 國家戰略과의 關係임을 다시금 附言해 둔  
 다.

라 할 것이다. 領土와 人口의 面에 있어서 中共은 再論의 余地  
 가 없거니와 어찌든 이러한 意味에서 보더라도 印度는 潛在的인  
 強大國에 屬한다고 할 것이다. 領土와 人口의 크기가 그대로 強  
 大國으로서의 地位에 直線的으로 延長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有利한 條件임을 알 수 있다. 特히 領土가 지니는 地政



34) Ibid., pp. 110 ~ 117.

35) Ibid., p. 135.

36) Ibid., p. 151.

37) Kenneth N. Waltz, "International Structure, National Force,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Political Power, co, ed., by R. Bell, D. V. Edwards, and R. H. Wagner pp. 335 ~ 345.

38) John G. Stoessinger, The Rights of Nations, p. 16.

39) Ibid., p. 17.

40) R. Bell, D. V. Edwards, and R. H. Wagner, op. cit., p. vii.

⑧ 決定作成機能에 대한 分析·評價가 重要하다. 決定作成機能에는 政治動態의 側面에의 要因이 作用함은 勿論 아무리 同一한 國家라 하더라도 人的·制度的 要因이 또한 이에 크게 作用한다. 따라서 相對國의 目標價値나 國家政策의 目標 또는 그 方向과 內容을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決定作成機能에 作用하는 政治動態의 要因만이 아니라 人的·制度的 要因을 또한 分析·檢討해야 한다.

⑨ 動員可能性에 대한 評價가 大端히 重要하다고 強調하여도 나머지 있을 것이다. 能力을 未發動狀態에 있는 힘의 素材 또는 資源이고, 힘을 發動狀態에 있는 產出結果라고 한다면 前者가 後者로 되기 위하여서는 動員計劃과 能力의 發揮라는 過程을 거쳐야만 한다. 一朝有事時 相對國과의 相對的인 行動關係에서 目標價値의 追求를 위하여 動員되지 않은 能力은 힘이라고 評價될 수 없다. 國家能力의 機能分析에 있어서 手段提供能力과 手段活用能力이 마비되는 것과 同一한 것이다. 힘의 素材로서의 可用資源은 動員能力의 過程을 거쳐 비로서 힘으로 化하는 것이다. 힘이 行動關係에서 產出된 結果이기 때문에 結果의 產出을 위하여 動員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實質的인 意味를 지닐 수 없다. 힘의 이러한 概念的인 內容은 經濟學에 있어서의 財貨의 概念과 相通되는 面이 많다. 아무리 重要한 財貨라 하더라도 그것이 特定한 時間·空間이라는 契機와 結付되지 않는다면 그 價値는 減少되며 極端에 가서는 零일 수도 있다. 힘의 概念에서 차지하는 動員可能性의 重要性은 이러한 時間·空間의 契

19) Karl W. Deutsch, "Toward an Inventory of Basic Trends and Patterns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APSR, LIV, March, 1960, pp. 34 ~ 57.

金永俊著 新生国政治論，一朝閣，1965年，pp. 57 ~ 67.

20) 上掲書，p. 58.

21) Karl W. Deutsch, op. cit., p. 39.

22) Harold and Margaret Sprout,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1962, p. 158.

23) Ibid., pp. 139 ~ 141.

24) Ibid.

25) Ibid., p. 167.

26) Ibid., p. 173.

27) Ray S. Cline, World Power Assessment, 1977, pp. 16 ~ 21.

28) Ibid., p. 34.

29) Ibid., pp. 39 ~ 52.

30) Ibid., pp. 53 ~ 57.

31) Ibid., pp. 58 ~ 70.

32) Ibid., pp. 76 ~ 78.

33) Ibid., p. 69.

서 더욱 要請될 것이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靜態的 計量的인 分析·評價가 無用하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說明한 Ray S. Cline 氏의 分析에서 본 바와 같이 複數의 國家政策의 目標 가 운데서 特定한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国力의 分析이라는 次元에서가 아니라 包括的인 目標遂行의 次元에서 国力을 政治構造 領域別 및 國家別로 總體的·計量的으로 評價하여 序列體系를 定立하는 것도 自國의 힘의 序列地位를 把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國家는 特定한 單一目標만을 追求하는 것이 아니라 同時에 複數의 政策目標를 追求하며, 또 國家活動은 停止狀態에 두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總體的·靜態的·計量分析의 未備點을 動態分析에 依하여 補完하는 試圖도 要請된다. 靜態的 分析과 動態的 分析의 有機的 聯關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④ 国力이란 國家機能의 所望스러운 狀態에서의 遂行을 위한 것이며 또 國家가 同時에 複數의 機能을 遂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機能的 分析이 要望된다. 機能的 分析은 위에 言及한 動態的 分析과 密接 不可分離의 相關關係에 있다. 國家機能의 分類는 Sprout 教授는 (1) 情報提供機能 (2) 決定作成機能 (3) 手段提供機能 (4) 手段活用機能 (5) 要求·抵抗機能等 다섯개의 範疇로 分類하고 있거니와 目的에 따라 政治·經濟·軍事·社會心理·科學技術等 要素別 分類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国力의 總體的 分析에 있어서도 包括的인 次元에서 이들 諸機能의 分析이 有益하거니와 國家機能의 個別的인 分析에 있어

서 이들 機能에 對한 分析이 要望된다.

⑤ 国力의 要素別 分析이던 機能別 分析이던 間에 그 分析方式은 어떠한 国力에서 차지하는 空間(領土)的·人間(人口)的 要素의 重要性을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領土와 人口는 国力이 依存하는 가장 安定的인 要素이며 또 計量的 要素에서 가장 典型的인 要素로 되어 있다. H. Morgenthau 教授는 美大陸이 다른 大陸에서 隔離되어 있다는 事實이 世界에서 美國의 地位를 決定하는 恒久的 要素라고 強調하고 있다<sup>39)</sup>. 核時代에 있어서 地理的·人口的 要素의 重要性을 過小評價하는 境遇가 없지 않으나 超大国間의 核膠着狀態의 事實 및 弱小國間의 特殊關係에서 보아 이들 領土와 人口라는 要素의 價値는 過小評價해서는 아니된다. 때문에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国力의 要素別 分類에 있어서 領土와 人口를 除外하고 分類하는 學者는 아무도 없으며 Ray S. Cline 氏가 指摘하듯이 領土와 人口는 国力에서 基礎的 要素로 되어 있으며 또 그의 國際權力 分類의 序列表에 있어서 強大國의 境遇에 있어서 大體로 領土와 人口에 있어서 序列이 앞서고 있다는 事實은 南北關係에 있어 우리의 立場에 새로운 意味內容을 含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領土와 人口의 面에 있어서 中共은 再論의 余地가 없거니와 어찌든 이러한 意味에서 보더라도 印度는 潛在的인 強大國에 屬한다고 할 것이다. 領土와 人口의 크기가 그대로 強大國으로서의 地位에 直線的으로 延長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有利한 條件임을 알 수 있다. 特히 領土가 지니는 地政

學的 地位는 核時代의 今일에 있어서도 戰略的 地位 設定이라는 軍事的 要素와 密着되어 있다는 事實에 우리는 留意하여야 한다.

⑥ 国力의 分析·評價에 있어서는 安定과 能力(capability)의 相關關係에 대한 評價를 考慮함이 要望된다. 国力이란 相對國과의 行動關係에서 相對적으로 分析·評價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相對國에 대한 行動關係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對內的 先行條件이 되는 것은 安定이 아닐 수 없다. 安定을 基盤으로 하는, 對相對國 關係에서의 相對的 힘이 国力이라고 한다면 国力의 評價에 있어서 安定과 能力과의 相關關係를 評價하는 것이 要望된다 함은 充分히 理解될 수 있다. 對外政策이 國內政治의 延長이라고 함은 이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安定을 떠난 能力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能力을 떠난 安定을 期待할 수 없다. 安定이란 特定한 國家가 自國民 또는 他國의 政治的 權力에 對한 安定을 意味하는 反面에 能力은 自國民 또는 他國에 對한 政府의 能力을 意味한다. 따라서 安定과 能力은 不可分離의 關係에 놓여 있다. 安定과 能力의 相關關係의 分析은 計量的인 分析和 質的인 分析을 統合하는 分析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有益한 分析이 된다고 Karl W. Deutsch는 主張하고 있다.

⑦ 國家意思 및 國家戰略과 같은 主觀的 要素에 대한 配慮가 重要하다. 国力이란 人的·物的·精神的 要素의 總計이므로 아무

리 人的·物的 要素에 있어서 優越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精神的 要素가 欠如되면 意味가 없다. 人的·物的 要素와 精神的 要素와 의 相關關係는 單純히 「플러스」關係가 아니라 相乘關係에 있으며 따라서 精神的 要素가 零이면 人的·物的 要素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과의 相乘關係에 있는 国力은 零일 수 밖에 없다. 国力이란 單純히 能力(capability)의 算術的 總計가 아니므로 素材 또는 資源으로서의 能力을 産出된 「結果」로서의 힘(power)으로 化하기 위하여서는 産出能力이 必要하며 이 能力에는 産業化나 科學技術과 같은 客觀的·物量的인 要素만이 아니라 主觀的·意圖的 要素 다시 말해서 目標達成을 위한 國家意思 및 戰略目的 達成을 위한 意思가 不可欠하다. 能力은 未發動狀態에 있는 힘의 素材 또는 資源이며 이것을 發動狀態에 있는 産出結果로서의 힘(power)으로 化하기 위하여 媒介的인 役割을 하는 것이 바로 意圖的·主觀的 要素이다. 能力은 客觀的 要素이며 評價할 수 있는 反面에 힘을 主觀的 心理的이며 評價하기 어렵다 함은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国力을 위한 素材 또는 資源인 能力 即 國家政策 目標의 達成을 위한 手段提供機能과 手段活用機能이 重要하다고 하더라도 于先的으로 그것을 위한 國家意思가 先行된 다음에 그 能力(戰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國家意思를 構成하는 要素로서 (ㄱ) 國民의 文化的 統合의 程度 (ㄴ) 國家指導力 (ㄷ) 國家戰略과의 關係임을 다시금 附言해 둔다.

⑧ 決定作成機能에 대한 分析·評價가 重要하다. 決定作成機能에는 政治動態의 側面에의 要因이 作用함은 勿論 아무리 同一한 國家라 하더라도 人的·制度的 要因이 또한 이에 크게 作用한다. 따라서 相對國의 目標價值나 國家政策의 目標 또는 그 方向과 內容을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決定作成機能에 作用하는 政治動態의 要因만이 아니라 人的·制度的 要因을 또한 分析·檢討해야 한다.

⑨ 動員可能性에 대한 評價가 大端히 重要하다고 強調하여도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能力을 未發動狀態에 있는 힘의 素材 또는 資源이고, 힘을 發動狀態에 있는 產出結果라고 한다면 前者가 後者로 되기 위하여서는 動員計劃과 能力의 發揮라는 過程을 거쳐야만 한다. 一朝有事時 相對國과의 相對的인 行動關係에서 目標價值의 追求를 위하여 動員되지 않은 能力은 힘이라고 評價될 수 없다. 國家能力의 機能分析에 있어서 手段提供能力과 手段活用能力이 마비되는 것과 同一한 것이다. 힘의 素材로서의 可用資源은 動員能力의 過程을 거쳐 비로서 힘으로 化하는 것이다. 힘이 行動關係에서 產出된 結果이기 때문에 結果의 產出을 위하여 動員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實質的인 意味를 지닐 수 없다. 힘의 이러한 概念的인 內容은 經濟學에 있어서의 財貨의 概念과 相通되는 面이 많다. 아무리 重要한 財貨라 하더라도 그것이 特定한 時間·空間이라는 契機와 結付되지 않는다면 그 價值는 減少되며 極端에 가서는 零일 수도 있다. 힘의 概念에서 차지하는 動員可能性의 重要性은 이러한 時間·空間의 契

機와 結付하여 考慮하여야 한다.

⑩ 時間性과의 關聯에서 評價함이 重要하다. 国力의 分析·評價는 相對國과의 關係에서 過去·現在·未來의 展望까지를 豫測하기 위하여서 時間이라는 契機의 考慮가 必要하다. 뿐만 아니라 国力이 國家政策의 遂行을 위한 手段이라는 側面에서 國家政策 그 自体가 自國만이 아니라 相對國에 있어서도 長期性を 지녀야 하므로 国力의 分析·評價에 있어서는 時間이라는 契機를 考慮해야 한다. 거의 모든 政治的 共同体에서 通用되는 長期·中期·短期의 國家計劃이나 判斷은 이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以上으로서 国力의 相對的인 分析·評價에 있어서 考慮해야 할 原則的인 要素를 열개를 提示하였거니와 이것은 其他의 原則的인 要素들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決코 아니며 다만 많은 要素 가운데서 特히 이들 要素만은 配慮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남은 問題는 이들 列擧된 考慮要素를 具體적으로 實質的인 分析·評價作業에서 어떤 方式이나 方法에 依하여 評價할 것이냐의 大端히 至難한 問題가 提起된다.

現在 政治學 또는 國際政治에 있어서 힘의 分析·評價에 關하여 提起되고 있는 問題는 (ㄱ) 概念構成 (ㄴ) 理論構成 및 (ㄷ) 評價의 三大問題로 集約되고 있다<sup>40)</sup> 이들 三大課題의 效果的인 解決을 위하여서는 이들 三大課題의 解決이 同時的으로 追求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인 傾向으로서 概念定義와 評價技術을 지나치게 強



調하는 反面에 理論을 過小評價하는 弊端이 있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서는 概念定義는 勿論이고 理論과 評價의 相關關係 다시 말해서 評價가 理論의 脈絡에서 追求될 수 있는 方式이 模索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分野의 研究는 時間을 要하는 問題일 뿐만 아니라 設使 어느 程度 研究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概念이나 論理의 域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研究結果를 그대로 現實的인 實質的 作業에 適用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筆者는 어느 特定한 專門家들의 見解를 그대로 消化하기에 앞서 많은 專門家들의 研究結果에서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考慮要素만을 추려서 檢討했음을 附言해 둔다.

## 結 論 및 建 議

이로서 国力의 概念을 國際關係와 國家政策(또는 國家目標)의 相關關係에서 보고 国力의 構成要素와 그 構造分類 그리고 分析· 評價에 있어서의 考慮要素를 檢討하고 国力의 分析· 評價를 위한 技術的· 概念的· 理論的인 困難性を 指摘하였거니와 여기에서 結論 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建議코저 한다. 即

① 国力의 分析· 評價를 위한 實質的인 作業에 앞서 先行되어야 할 基本事業은 그의 分析· 評價를 위한 基本概念의 設定을 可能케 하는 国力의 概念· 評價· 理論設定의 三者의 相關關係에 關한 基本研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이러한 基本研究가 이룩되면 그러한 概念的인 틀에 따라 必要· 充分한 具體的인 資料의 蒐集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③ 国力의 分析· 評價에 對한 概念導入은 特定한 專門家の 理論的 模型에만 따라서는 아니되며 可及的 여러 模型에 따르는 分析· 評價로서· 比較 研究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 註 記

- 1) R.Aro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66, p.47 및 具永祿著 人間斗 戦争, 法文社, 1977年, p.191.
- 2) 金永俊著 国家利益斗 国家政策, 新明文化社, 1962年, pp.4~11.
- 3) 上掲書, pp.28~41.
- 4) 上掲書, p.364.
- 5) Charles Lerc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p.53.
- 6) 金永俊著 上掲書, pp.337~349.
- 7) H.Lasswell & M.Kaplan, Power and Society, pp.117~119.
- 8) 具永祿, 上掲書, p.195.
- 9) 具永祿, 上掲書, p.195.
- 10) 具永祿, 上掲書, p.195.
- 11) 具永祿, 上掲書, p.195.
- 12) 金永俊著 上掲書, p.241.
- 13) 上掲書, p.242.
- 14) 上掲書, p.242.
- 15) Charls Lerche, op.cit., pp.117~119.
- 16) Hans J.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1956, pp.93~154.

- 17) A.F.K.Organski, World Politics, 1958, pp.116 ~ 184.
- 18) Frederick H.Hartmann, The Relations of Nations, 1957, pp.15 ~ 18.
- 19) Karl W.Deutsch, "Toward/ an Inventory of Basic Trends and Patterns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APSR, LIV, March, 1960, pp.34 ~ 57.  
金永俊著 新生国政治論, 一潮閣, 1965年, pp.57 ~ 67.
- 20) 上掲書, p.58.
- 21) Karl W.Deutsch, op.cit., p.39.
- 22) Harold and Margaret Sprout,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1962, p.158.
- 23) Ibid., pp.139 ~ 141.
- 24) Ibid.
- 25) Ibid., p.167.
- 26) Ibid., p.173.
- 27) Ray S.Cline, World Power Assessment, 1977, pp.16 ~ 21.
- 28) Ibid., p.34.
- 29) Ibid., pp.39 ~ 52.
- 30) Ibid., pp.53 ~ 57.
- 31) Ibid., pp.58 ~ 70.
- 32) Ibid., pp.76 ~ 78.
- 33) Ibid., p.69.

- 34) Ibid., pp.110 ~ 119.
- 35) Ibid., p.135.
- 36) Ibid., p.151.
- 37) Kenneth N.Waltz, "International Structure, National Force,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Political Power, co,ed., by R.Bell, D.V.Edwards, and R.H.Wagner pp.335 ~ 345.
- 38) John G.Stoessinger, The Rights of Nations, p.16.
- 39) Ibid., p.17.
- 40) R.Bell, D.V.Edwards, and R.H.Wagner, op.cit., p.vii.

